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00호 [부제 제23152호] 주체99(2010)년 7월 19일 (월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사설

로동당시대의 불멸의 기적, 조선은 결심하면 한다

선군조선의 백철불굴의 기상을 과시하는 위대한 기적이 창조되었다. 날바다를 길며 조국의 지도를 넓힌 선군로동계급의 거창한 창조물이 서해바다위에 장쾌하게 일떠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승리적으로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광란하는 자연의 횡포를 과감히 박차고 대중적영웅주의와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을 훌륭히 일떠세운 간석지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고 그들에게 최상의 특별감사를 주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서해의 날바다위에 거연히 솟아오른 대계도간석지는 조선은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뚜렷이 보여준 위대한 창조물이며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우리 로동계급의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자, 영웅들만이 해낼수 있는 선군조선의 기적이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에 대규모의 간석지들을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심하고 발기하신 웅대한 국토건설전략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가렷처럼 절한 전회의 나날에 승리한 조국의 태일을 내다보시고 간석지건설의 절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우리 식으로 대담하게 간석지건설공사를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천만대를 두고 길이 전할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바람세한 배 같고 비내리는 감람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자연개조의 초행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우리의 국토건설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이 땅위에 현실로 꽃피워 수령님의 영생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 이것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 속도, 《회천속도》가 창조되고 주체철, 주체정신, 주체비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최후의 현상, 오늘날은 또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승리적으로 완공된 새기적의 기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이 안아온 조선의 본래이며 기상이니.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의 신념과 백두의 달력, 민족자존의 기상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할 때 대하여 친히 제의를 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여기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성파적으로 끝냈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되고 나라의 농업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광활한 대계도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수수만년 행성의 인력이 대계도의 용사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타는 애국적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의 완공, 이것은 조선인민의 승리와 제승, 지적잠재력과 창조력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21세기의 장쾌한 기적이다.

대계도간석지는 주체의 요구대로 자연을 개조해나가는 조선의 힘과 용맹의 결정체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우수한 지혜와 재능의 산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친히 제의를 하신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조선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세상에 없는것으로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우리의 높은 과학기술적능력, 조선사람들의 비상한 창조력이 힘있게 맥박치고 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은 그대로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드림없는 신념이었다. 그들은 겁쟁이는 고난과 시련을 뚫고 자연과의 투쟁을 과감히 벌리면서 국가과학원 건설전체본원 간석지연구소, 함흥수리동력대학 등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콘크리트비행기공법과 같은 세계간석지건설역사에 없는 우리 식의 독특한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수없이 창안 도입하여 공사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왔다. 이것은 선군로동계급과 지식인들의 과학적승리와 지적잠재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함흥수리동력대학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은 세계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인공지주성 《광명성2호》가 지구를 박고 우주로 기세차게 날아오르고 CNC 기술에서의 세계적패권을 쥐는것과 같은 경이적인 사변들이 편이 일어 나고있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된것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폭풍처럼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대경사이며 세계가 조선 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던 자랑이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과정은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용감성이, 비상한 사상정신력에 과학적창조력이 결합되면 남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21세기의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승리적으로 완공될수 있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위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국토건설 사상과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시려는 의지를 지니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간석지건설의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었다. 공사의 선 후자를 옮겨 설정하고 단계별에 따르는 면밀한 계획을 세움에 대한 문제, 대중적인 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리며 새로운 건설공법을 적극 창안 도입할데 대한 문제, 기술지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사에 필요한 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움에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제시하신 과업과 방도를 어렵고 방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인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최단기간 내에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끝낼수 있게 한 근본원천으로 되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의 어려운 나날에도 간석지건설에 모든 힘을 총집중하기 위한 국방위원회 명령도 하달하시고 필요할 조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조국의 대지를 넓히는 사업은 후손만대의 행복과 나라의 흥성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며 나라사정이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간석지건설에 필요한 유망식공작기와 륜전기계를 우선적으로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조국애와 후대관심을 수심리 제방들과 일망무제한 간석지밭들에 력력히 아로새겨져 있다.

간석지건설자들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위훈을 빛나게 관철할 일꾼으로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대문을 넓혀나가는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철불굴의 투사들이라고 하시며 시대의 영웅, 위훈의 창조자로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은 장군님의 사랑과 믿음이 있었기에 간석지건설자들은 만남을 헤치고 1호방조제공사를 근 반년이나 앞 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던 대고조제의 힘과 기술로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성과적으로 완성하는 기적을 안아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대담한 작전과 세련된 령도, 숭고한 믿음과 사랑에 의하여 영주군 다사도로부터 대다사도, 가차도, 대계도를 거쳐 철산반도에 이르는 데넓은 대지에 황금나락이 물결치는 사회주의 대농장이 일떠서게 되었다. 천만 인민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상과 령도에 충성으로 받들어나갈 때 선군조선의 불멸의 기적들이 창조되고 강성대국의 대문이 활짝 열리게 된다는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억척같이 뿌리내린 신념의 의지를 지니고 여러차례에

우리는 선군혁명의 길에서 천백배로 역세어진 필승의 신심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건설의 모든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하고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펼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고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역세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으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오게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 가나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번이 편이 일어나고있다. 지난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을 맞이하여 일어나고 이 땅위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최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체사상승리의 우렁찬 합성이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속에 대동강과 수증합성장의 사과밭마다가 펼쳐졌으며 오늘날은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완공은 우리 군대 영웅의 헌신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속에서도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으로 서해갭문에 솟아나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물리적으로 완공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건설자들의 고결한 총정과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날의 총공격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창건 65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대단히 높고 과업은 방대하다. 하지만 서해의 날바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삼머 투쟁하면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고 절망 못할 요새만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담력과 배양을 가지고 파고든 돌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자력갱생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후손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자, 영웅들만이 해낼수 있는 선군조선의 기적이다.

우리 나라의 서해안에 대규모의 간석지들을 건설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결심하고 발기하신 웅대한 국토건설전략이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일찌기 가렷처럼 절한 전회의 나날에 승리한 조국의 태일을 내다보시고 간석지건설의 절충한 설계도를 펼쳐주시였으며 강력한 건설력량을 무어주시고 우리 식으로 대담하게 간석지건설공사를 벌려나가도록 현명하게 이끌어 주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천만대를 두고 길이 전할 귀중한 재부를 마련해주시기 위하여 바람세한 배 같고 비내리는 감람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대자연개조의 초행길을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의 애국헌신의 자욱은 우리의 국토건설사에 뚜렷이 아로새겨져있다.

어버이수령님의 구상을 이 땅위에 현실로 꽃피워 수령님의 영생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자. 이것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을 비롯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의 확고한 의지이다.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선군시대의 새로운 천리마 속도, 《회천속도》가 창조되고 주체철, 주체정신, 주체비로가 폭포처럼 쏟아지는 최후의 현상, 오늘날은 또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승리적으로 완공된 새기적의 기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후손들인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정신력이 안아온 조선의 본래이며 기상이니.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주체의 신념과 백두의 달력, 민족자존의 기상을 체질화한 우리 인민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영생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영웅적위훈을 세운 평안북도간석지건설연합기업소에 《김일성훈장》을 수여할 때 대하여 친히 제의를 하시는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었다. 여기에 못지 않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성파적으로 끝냈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되고 나라의 농업 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전진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광활한 대계도지구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수수만년 행성의 인력이 대계도의 용사들처럼 당과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과 불타는 애국적헌신성,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싸워나갈 때 주체의 강성대국건설위업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의 완공, 이것은 조선인민의 승리와 제승, 지적잠재력과 창조력에는 한계가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한 21세기의 장쾌한 기적이다.

대계도간석지는 주체의 요구대로 자연을 개조해나가는 조선의 힘과 용맹의 결정체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우수한 지혜와 재능의 산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상》을 수여하도록 친히 제의를 하신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는 하나의 건축물을 일떠세워도 조선식으로 남보다 월등하게, 세상에 없는것으로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는 우리의 높은 과학기술적능력, 조선사람들의 비상한 창조력이 힘있게 맥박치고 있다.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언은 그대로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드림없는 신념이었다. 그들은 겁쟁이는 고난과 시련을 뚫고 자연과의 투쟁을 과감히 벌리면서 국가과학원 건설전체본원 간석지연구소, 함흥수리동력대학 등 여러 단위 과학자, 기술자들의 적극적인 방조밑에 콘크리트비행기공법과 같은 세계간석지건설역사에 없는 우리 식의 독특한 공법들과 기술혁신안들을 수없이 창안 도입하여 공사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여왔다. 이것은 선군로동계급과 지식인들의 과학적승리와 지적잠재력이 얼마나 우수한가, 함흥수리동력대학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조선은 세계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리고있다. 인공지주성 《광명성2호》가 지구를 박고 우주로 기세차게 날아오르고 CNC 기술에서의 세계적패권을 쥐는것과 같은 경이적인 사변들이 편이 일어나고있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된것은 과학기술을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 폭풍처럼 전진하는 선군조선의 또 하나의 대경사이며 세계가 조선 당겨 끝내는 위훈을 창조할수 있었던 자랑이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과정은 조선민족제일주의에 용감성이, 비상한 사상정신력에 과학적창조력이 결합되면 남들이 상상도 할수 없는 21세기의 기적을 창조하며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낄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증해주고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승리적으로 완공될수 있게 된것은 어버이수령님의 위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대국을 일떠세우려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절대적인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심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어버이수령님의 주체적인 국토건설 사상과 념원을 끝까지 실현하시려는 의지를 지니시고 여러차례에

우리는 선군혁명의 길에서 천백배로 역세어진 필승의 신심과 불굴의 의지를 안고 대고조건설의 모든 건설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켜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공으로 맞이하고 강성대국으로 비약하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기상을 온 세상에 높이 펼쳐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끄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념원이 빛나게 실현되고 강성대국건설의 승리는 확정적이라는 신심과 락관을 가지고 역세게 투쟁해 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돐이 되는 2012년에 거어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으실 웅대한 구상을 펼치시고 끊임없는 현지지도강행군을 이어가오게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조국땅 그 어디에 가나 인민의 리상이 꽃피는 번이 편이 일어나고있다. 지난해 혁명적대고조의 불길속에 조국청사에 특기할 사변을 맞이하여 일어나고 이 땅위에 인민의 리상이 실현되는 최후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 올해에는 주체사상승리의 우렁찬 합성이 도처에서 울려 퍼지는 속에 대동강과 수증합성장의 사과밭마다가 펼쳐졌으며 오늘날은 대계도간석지건설이 완공되는 기적이 창조되었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완공은 우리 군대 영웅의 헌신과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속에서도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으로 서해갭문에 솟아나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물리적으로 완공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고결한 총정과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날의 총공격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창건 65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대단히 높고 과업은 방대하다. 하지만 서해의 날바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삼머 투쟁하면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고 절망 못할 요새만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담력과 배양을 가지고 파고든 돌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자력갱생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속에서도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으로 서해갭문에 솟아나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물리적으로 완공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고결한 총정과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날의 총공격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창건 65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대단히 높고 과업은 방대하다. 하지만 서해의 날바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삼머 투쟁하면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고 절망 못할 요새만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담력과 배양을 가지고 파고든 돌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자력갱생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속에서도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으로 서해갭문에 솟아나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물리적으로 완공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고결한 총정과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날의 총공격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창건 65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대단히 높고 과업은 방대하다. 하지만 서해의 날바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삼머 투쟁하면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고 절망 못할 요새만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담력과 배양을 가지고 파고든 돌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자력갱생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속에서도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으로 서해갭문에 솟아나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물리적으로 완공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고결한 총정과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날의 총공격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창건 65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대단히 높고 과업은 방대하다. 하지만 서해의 날바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삼머 투쟁하면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고 절망 못할 요새만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담력과 배양을 가지고 파고든 돌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자력갱생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은 고난과 시련의 역경속에서도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양으로 서해갭문에 솟아나는 방대한 대자연개조공사를 물리적으로 완공한 영웅적위훈의 창조자들이다. 우리는 모진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당앞에 다진 맹세를 끝까지 지키기 위하여 사나운 날바다와 싸우며 강성대국건설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질 조국의 만년재부를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고결한 총정과 영웅적투쟁정신으로 생산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날의 총공격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당이 제시한 전투적과업을 무조건 수행하기 위한 일대 진공전을 벌여야 한다.

우리 조국청사에 특기할 조선로동당대표자회, 당창건 65돐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올해의 인민생활대고조에서 우리가 도달하여야 할 목표는 대단히 높고 과업은 방대하다. 하지만 서해의 날바다에 만년대계의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으로 삼머 투쟁하면 우리에게 못해낼 일이 없고 절망 못할 요새만 없다.

지금이야말로 전체 인민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담력과 배양을 가지고 파고든 돌진해나가야 할 때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자력갱생 믿고 사회주의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나갈 때 변영의 대문이 열리고 인민의 행보가 파도처럼 온다. 철리 부를 다시금 확증해주었다.》

전체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결심은 끝났다는 실현되고 장군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만 하면 이 세상에 못해 낼 일이 없고 더 큰 번이 일어난다는 신심과 용기를 안고 오늘날의 대고조건설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언제나 우리 인민들이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강성대국을 하루라도 빨리 일떠세우시려고 분파 초를 쫓아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고 오늘날의 총공격전의 속도를 최대한 높여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처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구호를 신장의 구호로, 실천의 구호로 높이 들고 대고조제의 기적과 같은 최후의 사변들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의 영웅적 투쟁정신과 투쟁기풍으로 오늘날의 대고조에서 비약의 폭풍을 일으켜 나가야 한다.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 창조물로 거연히 솟아오른 대계도간석지

조선로동당 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의 빛나는 승리

우리는 지금 완공된 대계도간석지의 전경대에 서있다.

한가슴에 안기에는 너무나도 가슴 벅찬 기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다.

날바다를 헤가르며 성벽처럼 뻗어나간 수심리 제방과 일망무제한 간석지의 전경을 어찌 흥분없이 바라볼수 있으랴!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완공, 이것은 아버지수령님의 유훈 관철의 길에서 이룩된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일대 사변이며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조선로동계급의 자랑찬 로적적선물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아버지수령님의 최대의 애국 유산인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에 강성대국의 문패를 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이며 수령님의 전사, 제자인 우리 인민의 승고한 의리입니다.》

오직 유훈관철의 한길로

광활한 대계도지구의 사회주의선경을 바라보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감동에 넘쳐 보이시였다.

대계도간석지의 발기자는 아버지수령님이십니다. 우리수령님의 뜻이 실현되요.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답게 일을 참잘했소!

일찍이 바람세찬 간석지의 강랑판에 첫걸음 내시며 저 수령님을 지령선으로 만들자고 절결히 말씀하신 우리 수령님, 대계도간석지가 완공되면 한계 구이 새로 생기는것과 같다니며 서해기슭에 평도의 자욱을 끊임없이 새기신 아버지수령님께서 오늘을 보시었다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땅은 조국의 영원한 제부이다. 날바다를 막아 간석지를 개간하여 후대들에게 물려주는것이야말로 최대의 애국사업이다.

민족민애의 변영의 러전인 국토를 넓히는 이 거창한 대자연개조사업을 전투에서 개척하고 이끌어오신분은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항일의 나날에 벌써 밀밭속 우뚝 솟아나서 간석지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무서워하지고 불비뿐이지는 가말한 전파의 나날에 승리할 해일을 내다보시며 간석지조사단까지 파견하신 아버지수령님 같이 승고한 위인이 력사의 그 언저리에 있었는가.

수수만년 밀밭물이 드나들던 곳이 황금나락 물결치는 옥도로 전변된 이 눈부신 현실, 고난과 시련의 광풍을 헤치며 대자연의 길에서 국토를 넓힌 이 기적중의 기적을 안아오신분은 과연 어느 위인이신가. 아버지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인 강성대국을 위해 심혼을 깡그리 불태우시며 창조와 변혁의 진성기를 펼쳐나가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우리 모두의 가슴은 세차게 설레인다.

절세의 위인의 고결한 총정과 열화같은 조국애가 빛날치고 령도자로서 심장으로 믿고 따르는 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헌신으로 수놓아진 대계도간석지건설의 년대기를 더듬으며 우리는 김일성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의 철학을 여기에 적는다.

아버지수령님께서

아버지수령님께서 기회를 있을 때마다 간석지를 개간하는 사업은 나라의 만년제부를 마련하는 보람찬 사업이라고, 서해안의 넓은 간석지를 다 개간하여 농경지로 만들어놓으면 우리는 후대들을 위하여 참으로 보람찬 일을 해놓는것으로 될것이라고 말씀하곤 하시였다.

저 앞바다를 막아 옥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며 평안북도에 간석지건설을 전문으로 하는 사업소를 조직하여 하겠다고 하신 주체 4.7 (1958)년 6월의 그날로부터 우리 수령님께서 서해지구 간석지개간을 위해 기울인 심혈은 이루 다 헤아릴수 없다.

대계도간석지건설, 정령 그것은 국토를 넓히는 자연개조기 전에 부강조국건설에 쌓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고수하고 빛내이시느라 못하느라 하는 판가리결정이었다.

주체 86 (1997)년 8월, 우리 나라 서해안의 전방적지역에 커다란 해일이 들이닥쳤다. 오랜 시간 지속된 강한 태풍과 길길이 날뛰며 4~5m의 높이로 해안을 편이이 타격한 파도는 대계도간석지의 제방에 수백m의 파렬구를 내였다.

참혹한 현실을 마주한 건설자들은 억이 막혀 주먹으로 땅을 쳤다. 그러나 어찌 알았으랴. 그 시각 우리 장군님께서 대계도간석지의

해일피해정형에 대한 자료를 마주하고계시는중을.

대계도간석지의 건설에 갖는 아버지수령님의 크나큰 심혈과 로고의 력사를 더듬으시는듯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방에는 승영한 빛이 어리여있었다.

간석지를 많이 개간하여 입는 문제, 먹는 문제를 해결하고 후대들에게 기쁨진 국토를 넘겨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승고한 뜻이 력력히 어리여있는 땅이 아니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결연히 펜을 드시였다. 천지풍파가 닥쳐온 대계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거머안고 관철할 그이의 결석같은 의지가 빛날치는 력사의 순간이었다.

조국이 준엄한 시련을 겪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간석지건설을 통이고무로 믿고 나간다는것은 우리 장군님 아니시면 누구도 감히 내릴수 없는 담대한 결단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해일피해를 하루빨리 가시고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하기 위한 비상대책을 취해 주신 소식은 건설자들을 신악같이 일으켜세웠다.

제방막이전투장은 한몸이 바뀌어 되어 사공치는 물속에 뛰어들어이라도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결사 관철할 건설자들의 불굴의 정신력이 화산처럼 폭발하는 거대한 분화구로 화하였다. 기나긴 제방을 따라 붉은기가 뒤덮이고 《결사옹위》, 《자력갱생》, 《총포탄》과 같은 살아움직이는듯 한 글자들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하였다.

할수 있다는 견해보다 불가능하다는 견해가 더 많았던 3호방조제마감막이공사, 제방막이의 마지막까지 그 좁은 물목으로 드나드는 바지마물방을 수억을 헤아렸다. 밀밭속이 어조될 때 물흐름속도는 초당 7~8m, 제방안쪽과 바깥쪽의 물높이차이는 무려 4m, 거대한 자연의 폭포를 련상시키는 집체같은 물기둥에 의해 밀바다는 3.5m깊이로 어리여졌다.

파렬구를 좁히며 서로 마주 향해오는 제방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자 그 좁은 물목으로 드나드는 바지마물방을 수억을 헤아렸다. 밀밭속이 어조될 때 물흐름속도는 초당 7~8m, 제방안쪽과 바깥쪽의 물높이차이는 무려 4m, 거대한 자연의 폭포를 련상시키는 집체같은 물기둥에 의해 밀바다는 3.5m깊이로 어리여졌다.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자랑분이 되어 오늘과 같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이 창조될수 있는것 아니라.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이 기간을 허용할수 없으시였다.

초심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다. 이 방대한 공사에 군인들을 불러주시고 대담한 작전과 주체적인 공법으로 사나운 자연을 길들이시며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창조로 불려오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지상과 해상, 수중, 하늘에 서까지 일제히 공격을 들이대는 대원정, 대전면전을 벌려나가는 그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과학적인 명안들은 얼마나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는 단 5년동안에 수심리 날바다우에 서해갑문이 솟아오르게 하는 거창한 전변의 화폭을 이 땅우에 펼쳐놓았다.

사생결단의 의지로 엄혹한 추위속에서 버텨내 불을 놓고 가마니를 덮으면서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고

그때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의 뜻이 어린 간석지제방의 설계도를 앞에 놓고 가슴을 뛰어뜯던 일군들과 건설자들의 피로운 심정을 어찌 다 헤아리랴.

인간의 정신력은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그 무한한 위력이 지칠줄 모르며 뿔어져오르며 하자던 눈뿔의 심장을 불을 달아주던 불굴의 투쟁력을 폭발시켜주는 위대한 힘이 있어야 한다.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이야말로 기적중의 기적을 낳는 정신력의 밀뿌리라고 이야기한다.

천리방선의 병사들을 찾은 날에도 대계도간석지를 그려보시며 자체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조직을 위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대계도간석지공사를 잘 계속하여 아버이수령님과 우리 당의 대자연개조구상을 훌륭히 실현해야 한다고 고무로 안겨주신 장군님이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계도간석지 3호방조제마감막이실체를 료해하시고 결된 문제들을 지체없이 풀어줄때 대한 결정적인 대책을 세워주시였다.

당시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선군시대의 기념비적창조를 대계도간석지! 눈부리 아득한 간석지벌과 끝없이 출렁이는 서해의 물결을 랑영에 끼고 뻗은 간석지제방우에 서니 강성대국의 승리의 날이 이 길로 소리치며 달려올것만 같다.

애국자들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애국심이 없이는 어떤 대자연개조공사를 할수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이 흥벽을 세차게 두드린다.

가장 엄혹한 시련속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대계도간석지의 정열한 운자는 애국자들의 대부대가 있는 한 최후승리는 우리의것이라는 크나큰 확신으로 가슴눌뻬게 한다.

대계도간석지건설의 날과 달들은 이곳 건설자들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높이 평가하신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 백절불굴의 투사,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할 위훈의 창조자들로 자라난 잇을수 없는 성장의

대자연개조사업의 모범을 창조하시여 날바다우에 솟아난 서해갑문

선군으로 존엄높은 내 조국 땅우에 솟아난 하나하나의 창조물들이 얼마나 위대한 구상과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룩되었는가를 우리는 서해갑문건설과정을 놓고서도 가슴뜨겁게 느낄수 있다.

처음 서해갑문건설을 두고 전문가들은 공사량, 자재, 설비, 자금 등 모든 조건을 타산하여 공사기간을 최소한 10년으로 예견하였다.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이 기간을 허용할수 없으시였다.

초심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다. 이 방대한 공사에 군인들을 불러주시고 대담한 작전과 주체적인 공법으로 사나운 자연을 길들이시며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창조로 불려오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지상과 해상, 수중, 하늘에 서까지 일제히 공격을 들이대는 대원정, 대전면전을 벌려나가는 그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과학적인 명안들은 얼마나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지도와 정력적인 령도는 단 5년동안에 수심리 날바다우에 서해갑문이 솟아오르게 하는 거창한 전변의 화폭을 이 땅우에 펼쳐놓았다.

사생결단의 의지로 엄혹한 추위속에서 버텨내 불을 놓고 가마니를 덮으면서 콩크리트치기를 진행하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의지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서해안일대의 판개체계를 자연흐름식물길체계로 바꿀때를 위한 사업이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단면

평안북도의 간석지건설자들은 대

주면 더 좋고 안 대주면 제힘으로 한다는 높은 각오를 가진 동무들이라

는 대해같은 믿음을 안겨주시던 아버지수령님의 그 모습으로 우리 장군님께서 기적의 날개를 콧집에 달아주시었으니 그 은정에 건설자들의 심장이 어찌 세차게 공동치지 않았으랴.

믿고선 제방이 파도에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위험속에서, 차디찬 물보라에 온몸이 얼어드는 강추위속에서 대계도간석지의 영웅건설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기개는 우리 식의 새로운 공법들을 낳았고 마침내 수심리제방을 다시 있고 바다물의 흐름을 멈춰세우는 기적을 안아왔다.

얼마간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으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3호방조제마감막이전투장의 표식비탈에서 이 동무들이 영웅들이라고 부에 넘치는 평가를 안겨주시였다.

아버이수령님의 유훈의 뜻으로! 오직 수령님 가리키신 한길로! 이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로 지나가니 심장의 피를 끓이며 령도자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전진해나가

기어 이 판철하시려는

우리는 한다!

나날이었다.

주체 97 (2008)년 6월 어느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소문도 없이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을 찾으시였다.

그날 건설장의 여러곳을 구체적으로 돌아보시며 실재를 료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평안북도간석지건설현황기초조사에서 큰일을 하겠다고, 간석지건설을 힘있게 내밀고 싶다는 새망을 찾아하여 부강조국건설을 서두르시였다.

이곳 건설자들이 어느 교파에서도 없는 공법을 창조하였다고 하시며 온 세상에 놀이 내세워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간석지를 건설한다는 믿음도 안겨주신 우리 장군님께서 공사에 필요한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도록 각별한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사랑을 주시면 천만부모도 따르지 못할 열화같은 사랑을 주시고 믿음

을 주시면 하늘같은 믿음을 통째로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안겨주시는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희한한 사변들을 줄기차게 창조하시며 조국방방곡곡으로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가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해 7월 서해의 간석지건설장을 또다시 찾으시였다.

지난해에 왔을 때보다 많이 달라졌다고, 마치 먼 곳에 온것 같은감이 난다고 하시며 건설자들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일군들과 뜻깊은 기념촬영을 하신 다음순간이었다.

그이께서는 지난해 여기에 왔을 때 간석지건설자들과 다음기회에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하였는데 약속대로 오늘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한다고 말씀하시는데였다.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한해전에 하신 약속을 지금껏 잊지 않고계시

어디까지나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우리는 한다!

막들을 심은 트랙토르들이 얼어붙은 바다우를 누비며 거리를 단속하여 하루계획을 200%씩 해제끼는 놀라운 혁신이 일어났다.

가정부인들이 건설장으로 다투어 달려나오고 온 공사장이 우뚝보로 어둠을 불사르며 잠들줄 모르던 그 나날에 아름답던 2년분공사과제를 1년안으로 앞당겨 끝낼수 있었으니 경애하는 장군님의 애국의 뜻

발되는 건설자들의 그 하얀은 총정의 이야기들을 이 작은 지면에 다

《간석지개간을 힘있게 내밀어 조국의 대지를 넓히자!》, 《간석지건설로 조국을 만드는 뿌리가 되자!》, 《더 높이 비약》, 《더 빨리 전진》...

나룻기는 붉은기와 함께 공사장의 곳곳에 새겨졌던 이 글밭들에서 사람들은 여기에 다 전진 못하는 건설자들의 열화같은 애국심을 엿

볼수 있었을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간석지건설의 나날에 있었던 그 가지가지의 사연들을 일일이 다 들어주시고 선군시대의 위대한 창조물을 일떠세운 대계도간석지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에게 최상의 특별기사를 안겨주시였다.

조국의 지도가 달려지고 서해간석지에 사회주의건설이 펼쳐지것도 좋지만 강성대국건설의 최후승리를 담보하는 정신적제부가 마련된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길수 없는 고귀한 자랑이다.

당시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이것이 불세출의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신념과 배짱이며 그이를 닮은 우리 천만민들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백을 움직이는 조선의 창조방식, 투쟁기풍이 여기에 있다.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강령군과라 신념을 더 조이고 새로운 돌격전에 나선 간석지건설자들의 투쟁기풍은 만만치 않을것이다. 김일성조선의 만년제부로부터 영원히 빛을 뿌릴 대계도간석지여, 선군시대의 기적의 력사를 대를 이어 온 세상에 소리쳐 자랑하라!

본사기자 백 룡

수령님은 오늘도 간석지벌에 계신다

선군시대의 희한한 대지, 귀중한 옥도로 전변된 대계도간석지를 현지지도하시면서 그리고 단속해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을 경건히 우리르며 간석지건설자들과 머리인 천만군민모두가 심장으로 리친웨임을 무엇인가.

아버이수령님의 승고한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활짝 꽃피워가시는 위대한 선군명장 김정일장군님께서 계시여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고 서해간석지벌에 황금나락 물결치는 소리가 들린다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한평생 인민들속에 계시고 인민들과 교락을 같이하시였으며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시였다.》

하나의 승영한 화폭이 우리의 가슴을 종종 두드린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은 아버지수령님께서 서해날바다를 헤가르며 배우에서 쌍안경을 드시고 대자연개조의 원대한 구상을 펼쳐주시는 한없이 자애로운 그 영상,

간석지개간사업! 이것은 애국의 최고화신이신 아버지수령님의 직접적인 발기로 진행된 령도에 의해 거창하게 진행되어온 위대한 대자연개조사업이다.

그날 서해안의 기상야 세차게 나래진 수심리전전의 어느 여름날 점심식사도 미루시고 오랜 시간 파도치는 갑판우에서 못자락을 적시시며 신도지구 간석지건설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그날 선군시대를 개간하고 여기서 경험을 얻어 서해안일대에서 버림받고있는 간석지벌에 개간하여 옥도로 전환시킬데 대한 문제와 그 순차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가르쳐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를 출영하는 물결은 끝없이 전하고있다.

조선로동당대표자회를 한달 남짓하게 앞두고있던 주체 55 (1966)년 8월 어느날 비단설에 새겨진 승고한 자욱은 또 얼마나 뜨거웠었는가. 쏟아지는 비도 기꺼이 맞으며 제방공사를 다그치기 위해 건설공법까지 가르쳐주시고

제기되는 문제해결의 방도도 명철하게 밝혀주신 우리 수령님의 헌신의 로고를 오늘도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있다.

인민을 위한 길인데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길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간석지에 첫걸음을 뚫는다. ...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험한 길도 다 걸으시는 우리 수령님의 고결하고 무한대헌 온정적 로고와 있어 온현간석지벌에도 기계농사로 흥겨운 농장들이 생겨나고 인민의 웃음과 행복이 넘쳐나게 된것 아니인가.

정령 인민위원을 승고한 좌우명으로 간석지인 아버지수령님이시야말로 거창한 간석지개간사업의 위대한 개척자이시고 령도자이시였다.

간석지개간사업에 바치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로고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은 위대한 선군명장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여 끝없이 이어지고있으며 빛나는 현실로 꽃피어가고있다.

일찍이 우리 수령님의 원대한 간석지건설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깊이 마음쓰시며 또다시나

운 배길과 험한 강랑길도 앞장서 걸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이 천만군민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있다.

지금으로부터 10여년전 나라에 보기 드문 해일이 들이닥쳐 대계도간석지 제방이 수백m나 터져나갔을 때 건설자들에게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온정어린 조치를 취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

그 위대한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자랑분이 되어 오늘과 같은 선군조선의 위대한 기적이 창조될수 있는것 아니라. 하지만 우리 장군님께서 이 기간을 허용할수 없으시였다.

초심을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잘살게 하는 일이라면 하루빨리 현실로 꽃피우시려는것이 우리 장군님의 애국의 의지였다. 이 방대한 공사에 군인

들을 불러주시고 대담한 작전과 주체적인 공법으로 사나운 자연을 길들이시며 그들을 영웅적투쟁과 위훈창조로 불려오시던 우리 장군님이시였다. 지상과 해상, 수중, 하늘에 서까지 일제히 공격을 들이대는 대원정, 대전면전을 벌려나가는 그의 대담하고 통이 큰 작전, 과학적인 명안들은 얼마나 건설자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는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의지가 낳은 고귀한 결실이다. 서해안일대의 판개체계를 자연흐름식물길체계로 바꿀때를 위한 사업이었다.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으로,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단면



본사기자 백 룡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 - 대계도간석지

불라는 애국심, 백절불굴의 정신력으로

력사적인 당대표자회를 맞으며 온 나라에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이 약동하는 시기에 선군시대의 또 하나의 자랑찬 창조물인 대계도간석지가 완공된 소식은 우리 인민들에게 크나큰 기쁨을 안겨주고있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의 성과적인 완공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국토건설사상과 우리당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승리의미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불굴의 정신력이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얼마전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를 찾아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성별마냥 땀이간지창한 제방들과 눈썹리 가득하게 펼쳐진 일방무제한 간석지밭을 보시며 대계도간석지와 같은 방대한 규모의 자연계조사업은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자, 영웅들만이 해낼 수 있는 기적중의 기적이라고 하시면서 건설자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어 최상의 특별감사를 주시었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안겨주시는 최상의 특별감사, 바로 그것은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는 신념과 의지로 싸워온 바다의 정복자, 백절불굴의 투사들만이 받아안을 수 있는 특대중의 특진인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과 당의 방침을 무조건 관철할 불라는 열의를 안고 사나운 파도와 싸우며 조국의 대지를 넓혀나가는 간석지건설자들은 용감한 바다의 정복자들, 백절불굴의 투사들이며 그들이야말로 조국과 인민이 영원히 기억하고 추억할 위훈의 창조자들입니다.»

완공된 대계도간석지는 아버지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자라난 선군조선로동계급이 지닌 무비의 담력과 배짱, 결사판철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자랑찬 창조물이다. 공사의 나날에 건설자들이 발휘한 결사판철의 투쟁기풍에

대한 이야기는 사람들을 끝없이 감동시키고있다.

3호방조제 마감막이공사때였다. 상상하기 어려운 공사과제를 놓고 현장에서는 해당 부문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협의 회가 열리었다. 물살이 얼마나 센지 짐작같이 큰 바위도 순간에 밀려나오는 마감막이공사를 는앞에 두고는 누구도 방도를 내놓지 못하였다.

중매의 경험이나 방법으로는 어렵도 없는 공사였다. 하지만 누구 하나 주저하지 않았다. 며칠째 협의회가 계속되는 속에 여러가지 참작적인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서로의 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치니 일찌기 일었던 새로운 공법들이 나왔다. 집체적지혜를 합쳐 창조한 새 공법들이 즉시 실천에 옮겨졌다. 한m 도 한m... 방조제는 합쳐진 전진하였다. 하지만 또 다시 돌이닥던 드센 파도에 중심m의 제방이 뚫려지면서 마감막까지 깊이 파어들어갔다.

이때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책임일군의 목소리가 울리었다.

«동무들, 우리가 간석지건설을 다시 시작할때는 특별한 공법이 있어 일손을 잡은것은 아닙니다. 당의 결심을 실천으로 빛내이는 여기에 선군조선로동계급의 본분을 다하는 길

이 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상밖의 해일이 들이닥쳤을 때를 돌이켜보게 하였다. 뚝뚝 뚝뚝 끊어져나간 제방, 해일이 달려 땅바닥에 끈두박힌 배, 순식간에 바다로 변한 농경지, 물에 잠긴 수많은 자재와 설비... 이루 형언할수 없는 자연재해는 사람들을 절망속에 몰아넣었다.

바로 그때 피혜현장에 격동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대계도간석지의 해일피해정형은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우리가 이렇듯 큰 해일피해를 받아본적은 일찌기 없었다고 하시면서 피해를 가시기 위한 현명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던것이다.

순간은 대계도방이 감격과 흥분으로 끓었다.

«경에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간석지건설자들도 모두가 이런 뜻으로 로해하신 경에하는 장군님께서를 기리며 땀을 흘리며 일하였다. 땀이 나뉘는 상에서 공사를 내밀자니 걸린것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자동부림배와 자동차가 몇 대 안되는데다가 기름, 전기사정까지 걸치다보니 건설자들이 손에 쥘것이란 정대와 함파밖에 없다고 하여도 파연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돌이 있어야 했다. 간석지건설자들은 정대와 함파를 들고 뚫쳐나갔다. 소련동도와 대연동도, 가차도, 대계도를에서 크고작은 발파를 위한 도갱공진이 시작되었다. 함마질소리가 그칠새없이 울리었다.

간석지건설전투장은 말그대로 싸우는 격전장을 방불케 하였다. 매일 발파구멍을 다 뚫기 전에는 일손을 놓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났고 발파후 안전대책이 세워지기 바쁘게 함마와 정대를 잡고 갱안으로 뛰어드는 건설자들도 있었다.

이런 투쟁의 날과 달이 흐르는 속에 끊어지던 제방의 여러곳이 다시 이어지게 된것이었다.

잇을수 없는 그 나날들을 돌이켜본 건설자들과 함께 기술자들은 새로운 신심을 가지고 뚫쳐나갔다. 드디어 방조제사이의 거리는 수십m에 이르렀다. 방조제사이가 좁아지면서 전투는 더욱 어려워졌다. 밀물과 썰물이 드나들 때마다 바닷은 수십m 깊이로 파이고 제방이 뚫려나갔다. 대형 뚝배기들과 돌물음들도 투석하는 주축 사정없이 밀려왔다.

바로 이러한 때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많은 수송설비와 자재들을 보내주시었다. 간석지건설자들도 모두가 장군님만 계시면 못해될 일이 없다고 하변

서 파감한 결사전에 떨쳐나갔다. 명하 수십°C를 오르내리는 혹한이지만 수십만산대발파가 연이어 진행되고 간석지건설력사에 없는 우리의 독특한 공법들이 현실에 도입되었다. 드디어 3호방조제 마감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결속되어 수십리 방조제가 이어지고 사뭇치던 바다물이 다시 흐름을 멈추었다.

얼마나 기다려온 력사의 순간인가. 서로 얼싸안고 평양하늘을 우리르는 간석지건설자들의 얼굴마다에 뜨거운것이 그 절세없이 흘러내렸다.

실로 흘러온 바다의 력사에는 가지가지의 사변들이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날바다를 막아 새 땅을 얻어내어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만년제방을 창조한 이런 전설적인 사변이 언제 있어본적 없었는가.

위대한 선군시대와 더불어 조국의 만년제방으로 일떠선 대계도간석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대자연계조업적을 길이 전하며 날바다우에 거연히 솟아 빛날 것이며 우리 당의 품속에서 정신력의 강자로 자라난 영웅계로동계급은 앞으로 조국의 지도를 넓혀가는 보람찬 투쟁에서 또다시 새로운 기적을 창조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창 길

최상의 정방이로 뚫어나갈 설계도

경에하는 장군님께서 대계도간석지에 무비의 헌신성을 발휘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빛나게 펼친 건설자들과 지원자들의 영웅적위훈을 높이 평가하시면서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 «김일성상»을 수여 하도록 친히 제의하시었다.

거창한 대계도간석지를 펼쳐놓는데 크게 기여한 설계집단의 수고를 신속들이 해아려주시고 최상의 평가를 안겨 주신 경에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정속에 간석지건설자들이 류례 없는 또 하나의 사변이 아로새겨진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김일성동지의 뜻대로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는것은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인 우리의 혁명적본분이고 최고의 도덕이리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적전진을 위한 근본담보입니다.»

대계도간석지 설계도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이 깃들여있는 뜻깊은 설계도이다. 여기에 기초하여 대계도간석지설계집단은 건설자들과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 간석지건설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하루빨리 완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설계를 완성

하고 시공을 부단히 다그쳐나갔다.

우 리 는 여 기 에 서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자랑찬 현실로 꽃피우기 위해 불같은 투쟁을 벌여온 대계도간석지설계집단과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의 심장속에서 파연 무엇이 뚫고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한가지 사실만을 전하려고 한다.

1997년 8월 어느날 그처럼 어려운 속에서도 중단없이 전진되던 간석지건설에 커다란 난관이 조성되었다. 심한 해일피해로 제방의 여러곳이 터져나갔다. 그때에도 건설자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터진 제방을 복구하기 위한 전투를 파감히 벌리었다.

드디어 3호방조제 마감막이 구간만이 남았다. 하지만 공사조건은 매우 어려웠다. 물결이 수십m. 짐체같은 돌도 단숨에 밀어제끼는 몰호름, 한치 한치 쌓아나가던 제방이 순간에 밀려나가고 다시 쌓였으면 허물어지고...

이때 공사의 전망에 대해 우려하는 일부 사람들속에서는 마감막이구간을 옮겨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목소리도 울려나왔다.

이것은 주어진 조건에 빗자하여 설계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소리였다.

한편 공사장을 찾았던 외국 사람들은 행성의 인력을 없애기 전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하였다.

하지만 설계일군들과 건설자들의 신념과 의지는 드림이 없었다.

«설계도를 절대로 변경시킬 수 없다!»

그들에게 당장 그 어떤 타산이 있었는지는 아니었다.

오직 하나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결사판철하고야말 신념,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길에 반드시 승리가 있다는 확신만이 그들의 가슴속에 타번질뿐이었다. 이런 강렬한 사상감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건설장에서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이 더욱 힘있게 벌어지고 특상과 그룹동자투석기공법을 비롯한 새로운 시공방법들이 적극 탐구도입되어 마침내 승리의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다. 그리하여 불가능하다던 마감막이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될 수 있었다.

참으로 수수만년 썰물과 밀물만 드나들던 서해안지대를 황금나락이 물결치는 옥도로 전면시킨 대계도간석지설계도에는 아버지수령님의 유훈을 결사판철하고야말 불굴의 정신력으로 싸워나갈 때 그 어떤 불가능도 가능으로 전면지배할 수 있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중의 나래도 펼쳐수 있다는 우리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결단불발의 의지가 새겨져 있었다.

하기에 우리의 자랑스러운 설계집단은 대계도간석지 설계도를 아버지수령님의 존함과 더불어 강성대국건설사에 길이 빛나게 하여주신 경에하는 장군님께 최상최대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있다.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마련한 대계도간석지설계집단과 건설자들과 같은 정신력의 강자들, 당과 혁명에 끝없이 충직한 애국자, 영웅들이 숲을 이룬 내 조국은 앞으로도 놀라운 전변의 력사를 자랑차게 펼쳐갈것이며 아버지수령님의 유훈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이 꽃피는 이 땅에는 자랑스러운 승전교가 끝없이 울려 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오 철 룡



조국의 만년재부, 사회주의선경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대계도간석지는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간석지건설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서해의 날바다우에 거연히 솟아오른 대계도간석지는 당창건 65돐과 당대표자회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이다.

날바다를 헤가르며 편편히

대계도지구의 새 모습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되었다.

지난 시기 염주군과 칠산군의 해안선은 바다물이 밀려드는 곳을 경계로 하여 우물쭈물하였다. 수수천년 내려온 이 해안선의 모습이 달라지는 천지개벽의 세 력사가 선군시대에 와서 펼쳐졌다. 대다시도부리 칠산반도까지 해안방조제로 연결되어 이 지역의 해안선

뻗어간 수십리의 제방, 일방무제한 평야를 방불케 하는 개간된 대규모의 간석지밭, 곳곳에 일떠선 새로운 창조물들... 보는것마다 감탄이 절로 나오고 더 좋은 매일에 대한 희망과 탄판으로 가슴이 부풀게 한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성과적으로 완공됨으로써 조국의 지도가 달라지게 되고 나라의 농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서 커다란 진전이 이룩되게 되었으며 날바다우에 사회주의선경이 펼쳐지게 되었다.

우리는 수심m나 줄어졌다. 서해바다의 하나의 섬이었던 대연동도는 인민의 문화휴식지로 전면되었다. 우물쭈물하던 해안선이 자를 대로 그은듯한 모습으로 지도에 새겨지게 되었다.

조국의 지도우에 표기되었던 대다시도, 가차도, 대계도를 비롯한 여러 섬들이 사라져 버리고 수심리 제방이 하나로 이어져 날바다를 헤가르며 뻗어

간 새 해안도로가 생겨났다. 대다시도지에서 칠산지까지 백수심리나 되는 길을 에돌아 다녀야 했던것이 이제는 자동차로 심분나마 달려도 오고갈 수 있게 되었다. 여러대의 자동차가 원만하게 어길수 있게 시원스레 뻗어나간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타고 달리는 사람들의 기쁨은 이루 헤아릴수 없다. 선군시대와 더불어 대계도지구가 물라보게 변모되었다.

황금과도설레이는 옥도로

내고 생겨났다.

푸른 주단을 펼친듯 한 넓 은 벌이 생겨난것도 자랑이지만 방조제의 덕으로 여러 군의 바다가농장에서 해일과 염기피해를 영원히 모르 고 해마다 만풍년의 로적가 리를 높이 쌓아올리게 되었다. 썰물과 밀물만이 엇바뀌던 해 바다우에 솟아난 평지 큰 간석지농장에서 해마다 알뜰생산량을 높이고있으니 나라의 쌀터미는 또 얼마나 높아 지랴.

새로 생겨난 희한한 창조물들

대계도간석지건설공사가 완공됨으로써 새로운 창조물들이 솟아났다.

은 간석지밭이 한눈에 안겨

와 단물을 좋아하는 물고기들을 다같이 대대적으로 기를수 있다. 그 옛날 갈대만 무성하던 간석지밭에 물고기들이 옥실거리는 양어장이 생겨 간석지밭의 풍치를 한결 들우고있다.

간석지밭에 새로 생겨난 소금밭도 자랑찬 자랑이다. 그 옛날 바다물만 드나들 때에는 그 누구도 이곳에 소금밭이 생겨 거나게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없었다.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간석지제방이 생겨 나면서부터 이곳으로 드나들던 밀물과 썰물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소금밭도 건설되어 해마다 많은 소금이 생산되고있다.

어찌 그뿐이랴. 해마다 많은 고기와 알이 생산되는 오리공장이며 땅어를 비롯한 살전 물고기들이 옥실거리는 축양장, 생산능력이 큰 현대적인 굴양 시설이 새롭게 꾸려져 인민생활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은 일인가.

본사기자 문 길 수

이 위대한 기적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넘원을 실현 하는 길에서

우 리 인민의 정신력이 앙당간 백절불굴의 투사들, 총괄발되는 파정에 이룩된 승리이다.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온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활화산과도 같은 애국심의 분출이다. 조선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파시한 민족자존심의 일대 시위이다.

계산할수도 가능할수도 없는 무한대한 조선의 힘!

진정 그것은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뭉쳐 아버지수령님의 유훈 판철에 떨쳐 나선 김일성동지의 후손들의 총성의 힘이다.

조선은 맹세로 자기의 리상을 포현하는 나라가 아니다. 우리의 손으로 강성대국의 문명을 달게 될 그날 세계는 조선의 힘을 다시 알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조 향 선

조선의 힘

이 위대한 기적들은 아버지수령님의 넘원을 실현 하는 길에서

우 리 인민의 정신력이 앙당간 백절불굴의 투사들, 총괄발되는 파정에 이룩된 승리이다.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온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활화산과도 같은 애국심의 분출이다. 조선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파시한 민족자존심의 일대 시위이다.

계산할수도 가능할수도 없는 무한대한 조선의 힘!

본사기자 조 향 선

우 리 인민의 정신력이 앙당간 백절불굴의 투사들, 총괄발되는 파정에 이룩된 승리이다.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온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활화산과도 같은 애국심의 분출이다. 조선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파시한 민족자존심의 일대 시위이다.

계산할수도 가능할수도 없는 무한대한 조선의 힘!

본사기자 조 향 선

우 리 인민의 정신력이 앙당간 백절불굴의 투사들, 총괄발되는 파정에 이룩된 승리이다. 솟는 힘 노도도 내밀어 온 세계를 앞서 나가려는 활화산과도 같은 애국심의 분출이다. 조선이 결심하면 못하는 일이 없다는것을 온 세상에 파시한 민족자존심의 일대 시위이다.

계산할수도 가능할수도 없는 무한대한 조선의 힘!

본사기자 조 향 선

크나큰 믿음안고 높은 실적을

자나깨나 그러던 경에하는 장군님을 완공된 대계도간석지에 모시고 승리의 보고를 올린 우리들의 가슴가슴은 끝없는 격정과 흥분으로 세차게 끓어 번지고있다.

돌이켜보면 대계도간석지건설의 성과적인 완공은 아버지수령님의 원대한 구상과 넘원을 이 땅우에 활짝 꽃피우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에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최근 년간 대계도간석지건설장을 여러차례나 현지지도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대를 두고 전해갈 대해같은 사랑과 믿음을 안겨 주시었으며 영웅적위훈창조로 고무격려해주시었다.

정령 아버지수령님과 경에하는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와 뜨거운 사랑, 크나큰 믿음은 우리 간석지건설자들이 불굴의 정신력으로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게 한 거대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우리는 대계도간석지건설을

완공한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않고 확산간석지 2계단 공사와 미진된 간석지내부방공사를 빠른 기간에 끝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갔다.

우리는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당의 구조를 심장깊이 새기고 모든 공사의 설계와 시공을 최상의 질적수준에서 하여 선군시대에 일떠세우는 건설물들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는 조국의 만년제방으로 되게 하였다. 우리는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광범히 벌려 새로운 건설공법들을 창안도입하여 건설의 질과 속도를 적극 높여나갔다.

우리는 7월의 무더위도 마다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 오시어 건설자들도 모두를 시대의 영웅으로, 위훈의 창조자로 온 나라에 높이 내세워주시는 경에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높은 공사실적으로 기어 보답하였다.

평안북도간석지건설련합기업소 기사장 서 원 길



선군 조선의 위대한 기적을 창조한 간석지건설자들의 영예 끝없다. 본사기자 김 중 훈 찍음

애국의 운행길에 빛나는 삶

륙해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기동려단 1대대 운전자 권경희동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대표회를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품과 맞이하기 위하여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나가고있는 당원들과 근로자층속에는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시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는 특별운성 자동차운수관리국 기동려단 1대대 운전자 권경희동무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후회가 없이 뜻있게 살고 부끄러움이 없이 아름답게 사는것이 우리 시대의 참된 삶입니다.》

권경희동무가 화물자동차운전사가 되어 운전대를 잡은 날은 10년전 5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자동차의 운전석에 앉은 그를 보고 대단한 녀성이라고 놀라워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아마도 얼마큼 소문이 나고있는 운전대를 놓을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만큼 험한 산비탈길도 눈보라 가림없이 밤낮으로 달려야 하는 장거리운행기는 쉽지 않았다. 더우기 권경희동무는 두 자식을 가진 어머니였다.

이러한 그의 가족속에 얼마나 좋은 절친과 각오가 자리잡고있는지 아는 사람은 많지 못했다.

나도 이 땅의 한 공민이다. 제힘으로 강성대국건설에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는 참된 인간이 되자!

이런 망심의 목소리가 그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러고있었다. 그것은 결을 떠난 남편의 뒤를 이어 운전사가 될것을 기동려단의 당조직에 제기하면서

그가 조국앞에 다진 맹세이기도 하였다. 그렇게 첫 운행길에 나선 때로부터 10년. 그날에 그는 소문난 녀성자동차운전사가 되었고 구역인민회의 대의원, 선군시대 공로자로 자라났다.

권경희동무가 첫 승승임무를 받고 청년영웅도로건설에 참가하였을 때였다. 현대의 자동차가 잠깐만 멈춰서도 순식간에 자동차들이 수심이나 높여서는 형편이어서 결는 한번 팔세도 없던 건설장에서 그는 다른 운전사처럼 힘겨운 전투를 벌였다.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에는 어느덧 남자운전자들의 손처럼 굳은살이 배었다.

하루는 작업장으로 어머니가 찾아왔다.

5살, 6살잡이 성곡이와 성편이를 친정집에 맡겨놓은채 건설장으로 달려온 그에게 어머니는 자식을 가진 녀자의 몸으로 운전사일을 한다는것이 어디 험한 일인가고 하면서 앞으로로도 계속 운전사를 하겠는다고 물었다.

그말에 권경희동무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운전사들이 없어서 저에게 운전대를 맡겼으면 아니에요. 제가 이 길에서 물러선다면 저를 믿고 내세워준 당조직에, 동지들앞에 면목이 없을거예요.》

운전사가 되려는 자기의 결심을 지지해주고 떠났던 당조직, 첫 운행길에 나선 모습도 지켜보던 정말 용감하고 고교를 안겨준 집안, 차승과 그가 제기되던 한밤중에도 달려와 일손을 도와주던 정다운 동지들...

권경희동무는 그 모든것을

저버릴수 없었다. 집안앞에 늘 자기를 세워보며 조국과 인민,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할 결심을 더 굳게 가다듬은 한 그가 아니었는가.

하기에 권경희동무는 어머니를 바래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힘들 때면 어머니곁에 가서 살 생각도 해보았어요. 하지만 전 자식을 가진 녀성이기 전에 한 공민이예요. 공민이 되면 나라앞에 전 의무가 있지 않아요.》

청년영웅도로건설장에서 시작된 그의 운행기는 남흥가스화대상공사장에 이르렀다. 이어서 방방곡곡 사회주의건설장소에 이어졌다. 권경희동무가 그 길을 즐기며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결한 공민적정신을 지니고있었기때문이다.

그는 남흥가스화대상공사에 참가하여 다른 운전사보다 두배, 세배의 실적을 기록하며 완공의 날을 앞당기는데 적극 기여하였다. 그날에 이런 일도 있었다.

합동에서 대살성비를 실고 남흥으로 돌아오던 그는 어느 한 산골길에서 멈춰서게 되었다.

장미로 불어난 산물들이 앞을 막아섰던 것이다. 마을사람들이 녀성운전사가 수고가 많다고 하면서 물이 졸자면 며칠 걸리겠는데 마을에서 쉬고 떠나라고 하였다. 그러나 권경희동무는 지체하지 않고 사물치는 물속에 들어서 차길을 내었다.

무거운 돌들을 안아내오는 그를 보고 마을사람들이 어서 물에서 나오라고, 그러다가 다칠수 있다고 하면서 자동차에 무슨 귀중할 걸 싣었길래 그러

는가고 하였다.

《저 차에는 남흥에 보낼 비료생산성비들이 실려있습니다. 그래서 순간도 지체할수 없습니다. 비료가 땅과 나와야 쌀이 나오게 아니니까, 우리 수령님께서 가르치신것처럼 쌀은 곧 사회주의입니다.》

그말에 마을사람들은 앞을 다투어 물에 들어섰다. 저녁 무렵에야 마친내 차길이 마땅 되었을 때 젖은 옷을 말릴데도 없고 차에 올라 운전대를 틀어잡는 권경희동무를 보고 마을의 한 로인은 머리를 끄덕였다.

《진짜배기에국자일세.》

권경희동무의 기쁨과 보람, 행복은 바로 운행길에 있었다.

언제나 마음속으로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걸음걸음 전진길을 달리는 장군님의 어린차를 따르면서 이어가는 운행길, 자기가 올린 소박한 편지도 보아주시고 사랑의 친절도 안겨주시신 장군님의 그 사랑에 보답할 일꾼이고 비가 오나 배탈없이 달리는 애국충정의 수령님, 그 길에서 권경희동무는 해마다 많은 수공계획을 훨씬 넘쳐 수행하였어도 운전에도 수리에도 막힘이 없는 만능운전자로 자라났다. 그는 선군혁명총진군대회에 비롯한 여러 대회들에 참가하는 영광도 지니게 되었다.

받아안은 영예와 행복이 크면 클수록 권경희동무는 자기의 공민적정신을 더욱 세정적을 하였다.

그 애국의 마음은 권경희동무가 지난 10년세월 걸고걸은 원군길에도 아름답게 수놓아져있다.

원군길, 그것은 권경희동무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삶의 《운행길》이었다. 병사들로부터 《우리 어머니》, 《우리 누이》로 불리우는 그는 군인들을 위해 아끼는것이 없었고 군인들은 그의 친동생, 친아들이나 다름없었다.

지난해 기동려단으로는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수석명예의 군인들이 찾아와 권경희동무를 에워쌌다.

《어머니! 축하합니다.》

수석명예 군인들이 한복소리로 존경을 담아 웨치는 소리가 마당가를 울리었다.

바로 그날이 권경희동무의 생일날이었던것이다.

군인들의 축하를 받으며 환하게 웃는 권경희동무의 모습은 슬하에 장한 자식을 둔 어머니의 모습 그대로였다.

승승임무를 수행하는 바쁜속에서도 사회주의건설에 동원된 자기의 일손을 전심으로 도와주던 《어머니》, 자기 집 터밭에서 가꾼 첫물남새며

꽃강배이를 군인들에게 먼저 맛보이려고 첫새벽에 탐스럽게 달려오던 《어머니》, 한 군인이 입맛을 잃었다는것을 알고 따끈한 잉어탕을 안고 한밤중에 나타났던 《어머니》...

어렸을 때에는 권경희동무를 보고 투정질하던 딸 성편이와 아들 성곡이도 이제는 다 자라집에 손님이 찾아오면 어머니처럼도 웃을 따주었다.

그말 때면 권경희동무의 얼굴에는 기쁨과 행복의 미소가 함뿍 어려곤 한다.

진정 권경희동무가 걸어온 인생길에는 자기만을 위해 산 자식이 아니라 조국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자옥이 아름답게 새겨져있다.

시대의 선구자로 낮은 삶을 뜻지어가고있는 권경희동무의 모습은 이렇게 말하고있다.

—공민적의무에 성실하라. 조국의 부강번영에 보탬을 주는 참된 공민, 애국자가 되라!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호현

대동강구역 옥류1동 강진영가정

우리가 전생로병인 강진영동무의 집을 찾은것은 지난 일요일이었다. 집안은 어느때없이 흥성이었다.

얼굴에 웃음을 담은 로병은 마침 잘 왔다고 하면서 진정패의 이야기는 후에 하기로 하자고, 오늘은 자기를 성의껏 도와주는 젊은이들을 만나보고 싶은것이였다. 로병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 민족악학부 부분청년동맹비서 김병식동무와 교원리경희동무였다.

《이 동무들과 나와의 인연은 여러해전에 맺어졌소.》라고 말머리를 멘 로병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려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는 영예군인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들의 생활에서 자기모란 불핀이나 애로도 없도록 세심히 보살피주고 잘 도와주어야 합니다.》

김병식, 리경희동무들이 대학에서 일을 시작한 때였다. 그들은 학부방 동주용동무로부터 민족악학부의 교원들이 오래전부터 강진영동무의 건강과 생활을 보살피고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들은 전파의 불길속을 뚫고 피의 락동강을 건너온 진정로병, 수석명예인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에서 일하는 영예군인 강진영동무를 도와주는것은 자기들의 응당한 도리라고 생각하였다. 그때부터 그들은 매일같이 강진영동무의 집을 찾았다. 대학에 배풀어 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에 대하여, 교육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들에 대하여 로병에게 들려주었

다. 그리고 로병의 건강과 생활을 성의를 다해 보살피주었다. 그들의 모습은 학생들에게 《거울》로 되었다. 김철옥, 김진혁, 김지성, 김수련동무를 비롯한 대학생들도 그들과 걸음을 같이하였다. 영예군인에게 보양도 안겨주었고 전신가요도 불러주었다. 로병이 들려주는 진실투쟁이야기들은 청년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빛을 깊이 새겨주었다.

문득 문득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따가 피어이며 청황송로가 들어있는 꾸미미를 든 처녀들이 방안에 들어섰다. 맑은 가을이 그들을 맞이한 로병은 우리에게 청양삼청 대동강본점의 청년동맹초급일꾼들이 손잡고, 조수련동무들을 비롯한 청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이였다. 그러면서 그들이 자기를 할아버지 부르면서 여러해동안 친척육의 정으로 돌봐주었고 있는데 대하여 이야기하였다.

《저의 집을 찾는 사람들은 이뿐만이 아니라고.》

강진영동무는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기계대학 학생들, 옥류1동 사무실을 비롯한 주민들과 대동강은하리북쪽장 청년들의 소행에 대해서도 들려주었다.

날을 따라 활짝 꽃피는 집안주미꽃을 대 로병의 가정에서도 뜨겁게 느낄수 있어 우리의 가슴은 흥분으로 설레었다.

우리는 강진영동무의 얼굴에 비친 웃음을 보며 생각하였다. 전세대들의 넋을 순결하게 이어가는 청년들의 미더운 모습들이, 혁명선배들을 위하는 새 세대들의 뜨거운 도덕의리심이 그 웃음을 피운것이라고.

본사기자 김승표

부모의 집에서 만나는 사람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을 찾아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일행 경모의 정표시

【평양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만수대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통상을 찾아 18일 모하메드 함맘 씨아드 알-아브들라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과 일행이 경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손님들은 나라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한행성을 바치시였으며 세계 자주화위

영광의 땅에 새겨가는 값높은 자욱

황주군 철도협동농장 일꾼들과 농장원들

황주군 철도협동농장에 들어서면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현지도표시비가 한눈에 안겨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몸소 농장에 찾아오셔서 알곡생산을 늘이고 파수업과 양어를 발전시키며 강하천을 정리하고 문화주택과 학교, 농민휴양소를 잘 건설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내용이 새겨져있는 현지도표시비, 바로 여기에 이 농장의 영광의 력사, 전진의 농민들이 함축되어있다.

하기에 이곳 농장원들은 어머니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은덕을 언제나 심장에 뜨겁게 간직하고 살아 내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수령결사옹위정신은 무엇보다도 당과 수령의 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어나가는데서 뚜렷이 나타나야 합니다.》

—모든것을 다 바쳐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길이 빛내자!

이것은 관리위원장 량희철동무를 비롯한 이곳 일꾼들과 농장원들의 파수명이다.

지난해 농사결속을 하던 때였다. 량희철동무가 다음해농사에 쓸 벼를 미리 장만할데 관한 과업을 제기하였다. 다음해에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여 세 배모를 대대적으로 키우자면 새 벼를 많이 필요하리라는것을 타산하였기때문이다. 그

는 그런 실정에 맞게 농장원들의 땀과 노력을 위한 방도로 합리적으로 찾아냈다.

농장에서는 모든 일이 일꾼들의 이런 주도세밀한 작전에 따라 치차처럼 맞물려 진행되고있다. 무슨 일이든 최적기에 와닿아 끝내는 방법으로 영농공정들을 앞당겨나가고있다. 실제로 가마니는 탈곡전에 다 짜놓고 기름생산도 땅이 열기전에 끝내으로써 많은 로력예비를 찾아내어 다음공정의 일을 앞당겨 한다. 이렇게 하여 얼마든지 농사를 자제로 지으면서 한해농사도 잘 계속짓는 성과를 거두고있다.

량희철동무를 비롯한 일꾼들은 이렇게 공정을 앞당겨 여러 가지 일을 단번에 밀고나간다는데 무슨 일이든 설치치 않고도 요구성을 높이고있다. 건물건설은 몇대를 물려가도 끄떡없도록 돈돈하게, 누두정리기는 세멘트미장을 한것처럼 미끈하게, 기름미를 쌓아놓을 때에는 어느 포진이나 똑같은 형태로, 영농자제를 쌓아놓는 것도 직각직선으로...

이런 일습례로 하여 이 농장에 들어서면 여기가 소문난 철도리구나 하는 느낌이 누구나 예지나 절로 든다.

농장당조직에서는 영광의 땅을 끝없이 빛내도록 일꾼들과 농장원들을 떠밀어주고있다.

지난 봄에 어느 한 작업원의 초급일군이 선진영농방법을 받아들이기 위한 사업을 계획해 보는데 밀리지 못한 일이 있었다. 그때 리당일꾼인 김순찬 동무는 그에게 이 땅을 사랑하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 히천이런 달리는 뜨거운 마음

최전발전소 건설을 성실성있게 하고있는 사람들속에는 군인건설자들로부터 《우리 어머니》로 불리우는 로력영웅인 지배인 안금순동무를 비롯한 최전선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원군은 최대의 애국이며 원군의 이룩속에 선군시대가 빛난다.》

열출을 한번씩! 이것은 지난해 위대한 장군님께서 최전발전소건설에 찾아오셔서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고 크나큰 사랑과 믿음의 안식을 주시었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한 후 최전선 종업원들 모두가 스스로 정한 원동목표였다.

얼마나 뜨거운 마음들이 그들이 안고가는 원호물자 마다에 어려웠던가. 거기에선 인민군후방가족들의 친부모의 다정한 사랑도 담겨져있었고 첫물말기며 남새를 군인건설자들에게 먼저 맛보이려고 부엌밭을 가꾸며 흘린 구슬땀도 숨겨져있었다.

비내리는 한밤중에 원호물자를 마련하느라 수백리 수송길에 혼연히 나서던 전사며 병사들의 입맛을 돌리려는 별식을 한가지라도 더 마련하려고 아글타글 에스

터 로리사...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더 뜨거워만지는것이 종업원들의 원군열의였다. 어느날 원호물자를 마련하며 지배인 안금순동무가 말하였다.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가정의 어머니수실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라 친만민을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로고는 그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것은 안금순동무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어려왔던 고난의 시기 몹소 러판에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고 종업원모두에게 가슴가득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덕속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 공로자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난 지배인이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보탬의 자욱을 따라세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그였다.

경정으로 눈금을 적시는 지배인을 보며 종업원들은 한복소리로 말하였다.

《지배인동지의 그 마음을 우린 잘 알입니다. 발전소건설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살리

희천리관 일꾼들과 종업원들

리모두는 언제나 마음을 진심장에 두고 병사들의 《어머니》로 살 결심입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가림없이 자기만을 스스로 정한 날이 오면 모든 종업원들이 마음과 마음을 맞춘다.

《병사들이 우리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를 때면 생각이 많아집니다. 한가정의 어머니수실을 하기도 쉽지 않은데 나라 친만민을 돌보시는 우리 장군님의 로고는 그 얼마나 크시겠어요.》

그것은 안금순동무의 심장의 목소리였다.

어려왔던 고난의 시기 몹소 러판에 찾아오셔서 자기들이 해놓은 자그마한 일도 그토록 높이 평가해주시고 종업원모두에게 가슴가득 사랑의 선물을 안겨주시는 어머니장군님의 그 사랑, 그 은덕속에 온 나라가 다 아는 선군시대 공로자로, 로력영웅으로 자라난 지배인이었다. 언제나 위대한 장군님을 절절히 그리며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보탬의 자욱을 따라세울 일념으로 가슴 불태우는 그였다.

경정으로 눈금을 적시는 지배인을 보며 종업원들은 한복소리로 말하였다.

《지배인동지의 그 마음을 우린 잘 알입니다. 발전소건설이 완공되는 그날까지 우

들은 그 열마였던가. 그 과정에서 군인건설자들의 혁명적군인정신을 본받아 종업원들의 일본래는 또 얼마나 달려왔던가.

강성대국건설의 최전선인 최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성실성의 원호화하는 길이 바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뜻도 마음도 걸음도 함께 하는 길이라는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신념과 의지는 날과 날이 호를수록 더욱 역세여지고있다.

올해초 우리 장군님께서 북방의 강수위도 마다하지 않고 최전발전소건설을 찾아주시었다는 소식에

점했을 때에도 종업원들은 떠나없이 떨쳐나섰다.

지켜보면 출장길에서 돌아온 지배인도 원호물자를 마련하기 위해 바빴다. 장군님의 명령을 관철하고자 병사들이 명함 30°C를 뜨게 해주는 현호물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제 집 아배로부터 찾았는지 그 하는 지배인의 그 헌신의 걸음을 누구도 막을수 없었다.

건설장에 찾아가 예술소품공연무대에 펼쳐놓고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푸짐한 식탁도 성의껏 차려준 날

원호물자 원호물자

병사들의 친혈육이 되며 언제 공사장에 펼쳐진 류다른 무대

평성시 두두2동 김순금 동무가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성어린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의 그날이였다.

눈물을 적시는 김순금 동무의 가슴속에는 최전발전소건설을 도와 응당 할 일을 한 자기에게 은정넘치는 감사를 보내주시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가득 차올랐다.

그의 눈앞으로는 최전발전소건설에 참가한 군인건설자들을 위해 건설장으로 첫 원호물자를 보내었던 지난해의 일이 선히 떠올랐다. 지난해 어느날 김순금 동무는 출장길에서 최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을 만나보고 돌아온 남편으로부터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최전발전소건설장에 차린 것은 은정넘치는 볼품의 정진력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제대군인인 남편의 목소리로 자주 울었다. 《다시 군복을 입고 발전소 건설장으로 달려가 전우들속에 서고싶구만.》

남편의 말에 김순금 동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것은 남편과 같은 심정이였다. 더우기 군인건설자들을 성실성으로 돕고있는 아버들과는 경제선동무대가 펼쳐져 건설자들의 습금을 뜨겁게 올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참된 삶의 가치는 당과 수령의 사상과 뜻을 받들고 성스러운 주체혁명위업에 헌신하는 보람찬 투쟁속에 있습니다.》

락양구역영예군인기동에 출생동태는 지난 기간 중 중요대상건설장들과 공장, 농촌들에 대한 경제선동활동을 활발히 벌려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새로운 위훈으로 고무해주셨으며 그날 위대한 장군님의 감사를 받아안은 영광도 지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영원한 병사라는 자각을 안고있는 영예군인들은 회

건설장에 영예군인들과 종합학국종업원들의 《합동공연》무대가 펼쳐지게 되었던것이다.

영예군인 리익수동무와 류판만동무들이 안해들과 함께 부른 2중창들과 녀성영예군인 윤정희동무가 부른 두창 등도 그리하였지만 보전경제학국관리국 종합학국 지배인 김경옥동무가 읊은 자작시며 종업원들인 리순영, 한윤희, 김경옥 동무들이 영예군인들과 함께 부른 중창은 군인건설자들로부터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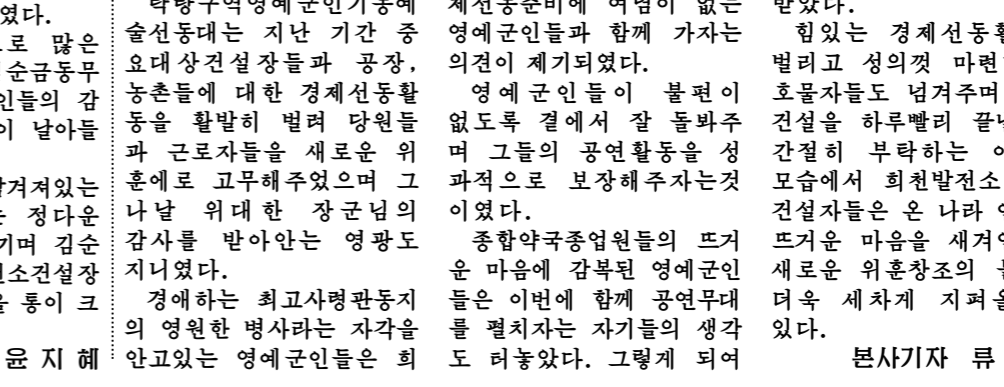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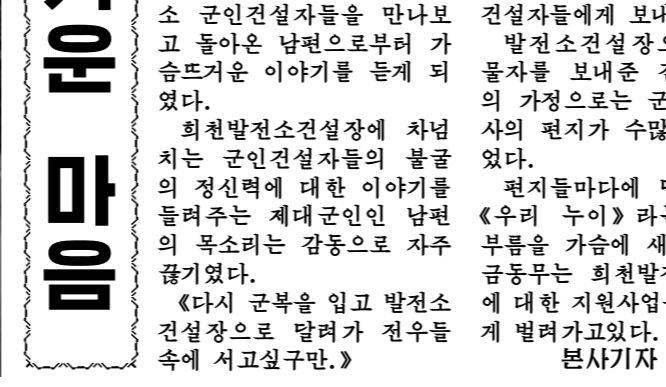
있었던 경제선동활동도 벌이고 성의껏 마련한 원호물자들도 넘겨주며 언제 건설을 하려할까 끝났을 것같이 부락하는 이들의 모습에서 최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은 온 나라 인민의 뜨거운 마음을 새겨주며 새로운 위훈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다.

본사기자 류기쁨

아시아 축구 련맹 위원장 일행 도착

【평양 7월 18일 조선중앙통신】모하메드 함맘 씨아드 알-아브들라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과 일행이 18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 아시아축구련맹 위원장일행



온 민족이 우러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는 위험한 도발소동

우리 인민이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탁월한 군사전략가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거꾸러뜨린 전승의 날이 다가오고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기 위한 영웅적항쟁에 전체 인민을 불러일으키고 탁월한 전략 전술로 미제의 침략적도전을 단호히 짓부서버림으로써 위대한 전승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업적에 대하여 열렬히 칭송하고있다.

김일성주석님처럼 그랄듯 출중한 방법으로 강대한 두 세계 주주의 군대를 타당한 실례를 령하는 일이 못된다. 전설적영웅이신 김일성주석님께서 지니신 백전백승의 방법이 있었기에 100만평동군이 녹아났고 세계제패를 노리던 미국의 코대가 보기 좋게 쪼개졌다. 정녕 세기의 위인, 전세의 영웅, 불세출의 명장 김일성주석님에 대한 인민의 칭송은 천만년 세월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

김일성주석님은 현대조선이 낳은 민족적영웅이다. 한세대에 두 제국주의를 타승하신 그런 위인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다. 김일성주석님은 어제 도 오날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

민족사가 기록할 만고절세의 영웅이다.》

이 격찬의 목소리들에는 우리 민족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민족의 위대한 전설적영웅,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대한 남녁겨메의 한결같은 흥모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있다.

연제인가 서울의 자주학회가 주최 한 토론회에서는 이 어머니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백승의 전략전술과 비범한 영웅성을 칭찬하는 목소리들이 높이 울려나왔다.

《김일성주석님은 항일대전기기부터 어느 전쟁사나 병사, 병법에도 없는 신묘한 전술을 쓰시었다. 적아간의 역량, 기술적 대비에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 연제나 승리를 이룩하실수 있는 것은 그분의 탁월한 령장으로서의 지략과 당력, 영군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류사에는 공적을 쌓은 장군도 많고 명성을 떨친 군사 전략가도 허다하다. 그러나 백전백승의 전략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몇몇이 있을지 모르지만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전에 있던 미제침략군을 소탕하시기 위하여 추지법을 쓰시었다. 눈감각할 사이에 대군은 포위되고 《상승사단》이라고 하면 미군 24사는 독안에 든 쥐모양이 되어 녹아났다. 그리고 사단장직은 포로신세가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이북의 승리로 끝났을 때 우리 삼촌이 《김일성주석님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장이시다.》라고 하던 이야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나 명장의 술기 가 넘치는분이신가. 인류력사는 제노라 하는 명장들을 적지 않게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님처럼 절충한 군사대가, 백전 백승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감탄하였다. 조선과 세계를 구원하신 김일성주석님은 진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도 조국해방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찬란의 마음을 느낄수 있다.

대전의 주진들은 지금도 《상승사단》이라고 으시대던 미제 24사단을 단숨에 포위설멸해 힘으로써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전법에 대해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전에 있던 미제침략군을 소탕하시기 위하여 추지법을 쓰시었다. 눈감각할 사이에 대군은 포위되고 《상승사단》이라고 하면 미군 24사는 독안에 든 쥐모양이 되어 녹아났다. 그리고 사단장직은 포로신세가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이북의 승리로 끝났을 때 우리 삼촌이 《김일성주석님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장이시다.》라고 하던 이야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나 명장의 술기 가 넘치는분이신가. 인류력사는 제노라 하는 명장들을 적지 않게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님처럼 절충한 군사대가, 백전 백승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감탄하였다. 조선과 세계를 구원하신 김일성주석님은 진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도 조국해방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찬란의 마음을 느낄수 있다.

대전의 주진들은 지금도 《상승사단》이라고 으시대던 미제 24사단을 단숨에 포위설멸해 힘으로써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전법에 대해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전에 있던 미제침략군을 소탕하시기 위하여 추지법을 쓰시었다. 눈감각할 사이에 대군은 포위되고 《상승사단》이라고 하면 미군 24사는 독안에 든 쥐모양이 되어 녹아났다. 그리고 사단장직은 포로신세가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이북의 승리로 끝났을 때 우리 삼촌이 《김일성주석님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장이시다.》라고 하던 이야기는 정말 잊혀지지

않는다.》

《얼마나 명장의 술기 가 넘치는분이신가. 인류력사는 제노라 하는 명장들을 적지 않게 알고있다. 하지만 우리 민족이 반만년력사에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김일성주석님처럼 절충한 군사대가, 백전 백승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위대성에 감탄하였다. 조선과 세계를 구원하신 김일성주석님은 진정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이 말을 통해서도 조국해방 전쟁을 위대한 승리로 이끄신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신 어머니수령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찬란의 마음을 느낄수 있다.

대전의 주진들은 지금도 《상승사단》이라고 으시대던 미제 24사단을 단숨에 포위설멸해 힘으로써 현대포위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지략과 전법에 대해 높이 칭송하고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대전에 있던 미제침략군을 소탕하시기 위하여 추지법을 쓰시었다. 눈감각할 사이에 대군은 포위되고 《상승사단》이라고 하면 미군 24사는 독안에 든 쥐모양이 되어 녹아났다. 그리고 사단장직은 포로신세가 되었다. 조국해방전쟁이 이북의 승리로 끝났을 때 우리 삼촌이 《김일성주석님은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명장이시다.》라고 하던 이야기는 정말 잊혀지지

미국이 일으킨 지난 전쟁에서도 백전백승하는 전법으로 제노라 하는 미제침략군을 굴복시키고 항복을 받아내시었다.

김일성주석님은 우리 민족 모두가 숭상하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다.

남조선의 어느 한 군사평론가는 조국해방전쟁에 관한 자기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었다.

《지난 전쟁에서 이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항일의 전설적영웅이시고 천재적인 군사전략가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신 김일성주석님의 위대한 명도의 결과였다. 7. 27 전승의 력사적패거지를 이룩하신 김일성주석님의 불멸의 공적은 위대한 명장을 모신 군민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있으며 그 어떤 대적의 침략도 쳐물리치고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보여 주셨다.》

그렇다!

우리 인민은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을 모시고 언제나 강하였고 승리만을 떨쳐왔다.

오늘 우리 민족은 위대한 수령님과 똑같이 또 한번의 천출위인 이시며 탁월한 천군명장이신 김정은주석님의 위대한 명도를 믿고있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배두령장 김일성주석님의 령도하에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온 세상에 떨쳐놓았으며 이 땅에서 언제나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아로 새겼었다.

미국과 작당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거어 버리려는 괴뢰호전파들의 책동이 극히 무모한 단계에 이르렀다.

달리진바와 같이 피피당국은 내외의 강력한 반대규탄에도 불구하고 7월중에 미국과 대규 모해상연합훈련을 비밀적으로 발표하였다. 이것은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파괴하고 긴장을 극도로 격화시키는 매우 위험천만한 망동이며 우리에게 대한 엄중한 군사적도발이다.

호전파들이 그 무슨 《도발에 대처한 방어훈련》이니 뭐니 하고 광고하는것은 이번 불장난의 위험성을 가리우고 북침전쟁도발행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껀변에 지나지 않는다. 80대의 최신예전투기를 탑재하고 1000km의 작전반경을 가진 미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연습에 투입된다는 사실만으로도 해상연합훈련의 위험성은 드러나고도 남는다. 남조선 호전파들이 미항공모함 《조지 워싱턴》 호가 해상연합훈련에 참가하면 대북부력시위의 효과를 극대화 하게 될것이라고 떠든것도 이번 해상연합훈련의 위험성과 도발적성격을 충분히 령해해주고있다. 괴뢰들이 미국과 함께 벌려놓는 해상연합훈련은 사실상 북침실동연습이며 전쟁도발의 진수꼭이다.

내외호전세력들은 이 북침전쟁연습에 이어년말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과 대잠수함훈련 등 10여차례의 전쟁발장난을 조선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지속적으로 벌릴 작정을 하고있다. 호전파들이 조선반도의 군사완화와 평화를 결코 바라지 않으며 우리를 군사적으로 위협하면서 제 2의 조선전쟁을 일으키려 한다하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번 해상연합훈련은 합심침몰사건과 관련한 미국과 괴뢰피피당의 그 무슨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것이다. 하지만 합심 침몰사건의 모략적정상은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내외의 공정한 여론들은 우리가 합심침

몰사건과 아무런 상관도 없다는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이제 와서 그 사건을 구실로 도발적인 북침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한다는것은 실로 억지스러운 높음이 아닐수 없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의장성명에서 조선반도의 현안문제를 직접대화와 협상을 제게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괴뢰들이 굳이 합심 침몰사건을 결코 미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해상연합훈련을 강행하려 하는것은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내외여론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다.

남조선당국은 합심침몰사건을 제멋대로 유엔 안전보장리사회에 상정하고 거기에서 어떤 조치를 끌어내려고 별의별 모지름을 다 했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은 응당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의 요구대로 행동해야 하지 않겠는가. 미항공모함까지 참가하는 도발적인 해상연합훈련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의장성명에 전적으로 배치된다. 남조선괴뢰들이 내외여론에 귀를 틀어막고 미국과 함께 해상연합훈련을 거어 이 강행하려 하는것은 조선반도평화의 파괴자, 북침전쟁판사로서의 저들의 호전적정체를 더욱 드러내놓을뿐이다.

남조선당국이 해상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유엔에서의 외교적참패를 만회하고 반공화국대결모략소동을 정당화하며 우리에게 대한 군사적 압력을 일층 강화하려고 꾀하고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 피피당국은 북침전쟁연습소동으로 조선반도의 정세를 긴장시켜 저들에게 리이 될것이란 하나도 없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남조선호전파들이 끝내 미국과 함께 위험한 전쟁발장난소동을 벌려놓는다면 그에 강력히 대응할것이다.

남조선당국은 해상연합훈련강행이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정세에 미칠 파괴적인 후과에 대해 심숙고하고 전쟁연습계획을 당장 취소 하여야 한다.

염 일 규

조선전쟁의 도발자는 미국 로씨야신문과 도이칠란드통신이 폭로

6. 25-7. 27반미공동 투쟁일과에 즈음하여 로씨야신문과 도이칠란드통신이 조선전쟁 도발자인 미국의 정체를 폭로하는 글을 보도하였다.

로씨야신문 《베스트리오트》 제 24호는 《누가 전쟁의 불을 질렀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제 2차 세계대전후 가장 가렬한 전쟁이었던 조선전쟁이 일어났던 해로부터 60년이 되었고 하면서 전쟁의 도발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하고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과거 일제의 식민지위에서 벗어난 조선인민은 해방의 환희에 넘쳐있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하였다. 《해방자》의 감투를 쓰고 저들의 군대를 남조선에 진주시켜 조선을 분열시킨 미국이 조선선을 지배하려는 야망을 드러내었다.

미국에 있어서 조선반도는 국동의 어느 지역에도 군사적 타격을 가할수 있는 전략적으로 충지였으며 세계제패를 위한 《대륙으로의 견논다리》였고 아시아라는 《고기덩어리》를 갈라내는 《단검》이었다.

다시말하여 미국은 조선전에 대한 지배권실현을 세계제패야망을 수행하는데서 판정적인

문제로 간주하고있었다.

이로부터 미국은 조선선을 지배하기 위한 조선전쟁도발에 전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미국은 남조선의 곳곳에서 군용도로, 비행장, 군항시설을 다그쳤고 무력증강에 피눈이 되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전면공격을 실행할 북침작전계획이 완성된데 따라 조선반도를 북과 남으로 가로 38°선일대에 수많은 공중목적들이 구축되었고 모든 무력이 공격형으로 배치되었다.

신문은 이러한 편만한 준비 끝에 미국대통령특사 델레스가 38°선을 시찰하고 전쟁개시 명령을 내린데 따라 1950년 6월 25일 조선전쟁이 일어났다고 폭로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미국은 조선전쟁도발남침자와 시간을 정는데서 그야말로 신중히 타산하였다. 원래 《일요일세력기술전술》은 침략자들의 상투적인 수법이다. 미국은 이 수법에 새로운 의미를 첨가하였다. 당시 미군사고문단 단장 로버트는 미국이 왜 6월 25일

되는가 하는 이유에 대하여 《25일은 일요일이다. 그리스도교국가인 미국이나 남조선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정하고있다. 우리가 일요일에 전쟁을 개시하였다는것을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었것이다. 다시말하면 우리가 전쟁을 먼저 일으키지 않았다는것을 사람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실로 하였다.

신문은 제반 사실들은 다름 아닌 미국이 조선전쟁의 불을 질렀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은 언제 가도 세계평화를 수취스럽고 미국적인 정의를 남긴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도이칠란드인 인터넷통신 라디오 우르피토도 2일 미국의 조선침략전쟁의 본질을 까밝히는 기사를 보도하였다.

통신은 60년전 전쟁전야의 조선반도정세와 조선전쟁의 리면, 오늘날도 끊임없이 가중되는 미국의 대조선침략전쟁에 대하여 상세히 까밝히고 미국이 제제와 압력에 매여달릴수록 조선은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는 길로 나가게 될것이다. 조선전쟁은 오늘날도 끝나지 않은 상태 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세종시원안》은 과연 추진되겠는가

남조선보수당국이 민심을 무시하고 독선적으로 벌려던 《세종시수정안》 추진소동이 된사리를 보았다. 《세종시수정안》과 관련된 4개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끝내 무결된 것이다.

결국 보수세당이 집요하게 추구하여온 《세종시수정안》은 9개월만에 비참한 운명을 고스래 되었다. 이것은 민심을 고스래 버리고 《세종시수정안》의 대외적인 반역정체를 대한 당파인 심판이다. 이것을 놓고 남조선항쟁에서는 《한나라당》은 《변히 안될 일일 떨어지는 미혹한소리》이라는 조소의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문제는 보수세당이 아직도 《세종시수정안》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 《국무총리》 정은찬은 《세종시수정안》부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는 자리에서 《부결은 명사에 기록될 유감》이라는 수작을 내밀었다. 한마디로 순순히 받아들일수 없다는것이였다. 한편 해외항쟁각지에서 《세종시수정안》을 부정적으로 폄하하는 목소리를 높여놓았다. 보수세당의 이 수작들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수정안》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되살아날수 있다는 각계의 민심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총대》를 통한 《경제위기구제법》과 《수정개헌》, 《홍수피해방지》라는 파멸적인

전개책을 《세종시원안》대로 2014년까지 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남조선당국이 《정권의 운명을 건 정치적승수》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우경화적으로 추진하던 《세종시수정안》을 과연 포기하고 《세종시원안》을 호락호락 추진하겠는가 하는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지 않고있다.

남조선 각계의 이러한 위기는 남조선집권자가 자기 입기기간에는 절대로 추진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대운하계획》을 《4대강정비사업》으로 슬쩍 이름만 바꾸어 강압적으로 내밀고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달리진바와 같이 남조선집권자는 지난 《대통령선거》때부터 《대운하계획》을 목이 터지게 광고하며 그것을 실현하려고 모지름을 놔왔다. 하지만 그것은 남조선인민들의 한결같은 규탄배격을 받았다. 결국 반역배당은 울며 겨자먹기로 그에 대한 포기를 발표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대운하계획》을 포기한것이 아니다. 청계천호수를 무질 제때부터 토목공사에 남다른 흥미를 가진 남조선집권자는 《대운하계획》을 포기한 야심을 버리지 않았으며 그에 대한 민심의 비난이 뜰때까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세종시수정안》이 어떤 형태로든 다시 되살아날수 있다는 각계의 민심의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교육총대》를 통한 《경제위기구제법》과 《수정개헌》, 《홍수피해방지》라는 파멸적인

거짓말까지 늘어놓으며 22조 여원이라는 엄청난 《예산》까지 할당하고도 밤낮으로 공사를 내밀고있다.

《대운하계획》이 각각의 반대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하자 보수당국이 그것을 《4대강정비사업》으로 변신시켜 내미는 것처럼 《세종시수정안》도 같은 수법으로 계속 추진하려 할수 있다는것이 여론의 것이다.

이번에 피피당국에서 《세종시원안》 추진이 《결정》되었는 《국회》에서의 《세종시수정안》 부결에 따른것이다. 하지만 보수세당은 이전 《정권》시 《국회》에서 저들도 찬성하여 통과시킨 《세종시수정안》을 거둬들여 뒤집고 《세종시수정안》을 추진하였다. 보수세당의 이런 전적을 놓고볼 때 그들이 《국회》결정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집행한다고 볼수 있겠는가. 더욱이 보수세당이 《세종시수정안》을 강행추진한 배경에는 제벌들과의 흑막관계가 있다. 그런 터러운 판계를 가지고있는 보수세당이 《세종시수정안》을 음모양모로 다시 추진할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지 않다.

하지만 명백한것은 남조선집권세력이 또다시 오그랑수를 쓰면서 《세종시수정안》을 추진하려 할 경우 인민들은 그것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라는 것이다. 반역도당이 민심의 심판을 받은 《세종시수정안》을 력사의 오물통에서 꺼내어 다시 추진하려 한다면 스스로 자멸의 구렁이를 파는 어리석은 망동으로 될것이다.

본사기자 리효진

권력에 추종하는 《인권위원회》의 죄행을 폭로

남조선의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 공동총회 《인권위원회》 소동에 맞장구를 치다못해 《대북심리전계개관안》을 통과시켜려고 발악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더욱이 현행법정이 자기의 지위를 리용하여 기구의 활동방향을 바꾸려고까지 하겠다고 폭로하였다.

모든 사실은 리명박이 내세운자가 계속 틀고있었는 한 기구가 당국의 그 어떤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들은 인정하였다.

그들은 현행법을 되전시키고 《인권위원회》에 대한 당국의 간섭을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남조선의 《인권위원회》 제2차 정기 공동총회 《인권위원회》 소동에 맞장구를 치다못해 《대북심리전계개관안》을 통과시켜려고 발악하였다고 그들은 밝혔다.

그들은 더욱이 현행법정이 자기의 지위를 리용하여 기구의 활동방향을 바꾸려고까지 하겠다고 폭로하였다.

모든 사실은 리명박이 내세운자가 계속 틀고있었는 한 기구가 당국의 그 어떤 인권침해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할수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고 그들은 인정하였다.

그들은 현행법을 되전시키고 《인권위원회》에 대한 당국의 간섭을 배격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검찰의 부당한 인권탄압행위를 규탄하는 남조선인민들

남조선의 피피검찰이 12월 《전국철거민연합회》의 강령제정 9년을 구경할때에 괴뢰집권을 그후 지난해 1월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동산철거민들의 통일투쟁을 주도하였다고 길고들며 이러한 폭기를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산철거민정신회와 변호인단에게서 당시에 당시의 정서는 추운 겨울 아무런 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벌린 투쟁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폭

거는 《전국철거민연합회》과 모든 철거민을 대상으로 한 《마녀사냥식》 탄압이라고 규탄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피피검찰이 12월 《전국철거민연합회》의 강령제정 9년을 구경할때에 괴뢰집권을 그후 지난해 1월 생존권을 사수하기 위한 동산철거민들의 통일투쟁을 주도하였다고 길고들며 이러한 폭기를 감행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유산철거민정신회와 변호인단에게서 당시에 당시의 정서는 추운 겨울 아무런 대책도 보장받지 못하고 쫓겨난 철거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벌린 투쟁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폭

역적패당의 반공혁명적분노를 규탄

성명 발표

끼르기즈스탄고룡련 공화국대결소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는 리명박보수세당을 준벌히 단죄규탄한다고 성명을 지적하였다.

성명은 피피패당이 합심침몰사건과 관련한 《조사결과》에 거짓이 없다면 공화국의 국방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여 공동소사를 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공지에 몰린 리명박패당이 미국과 야합하여 흑백을 진도해보려고 제야무리

미국대학교수들 기자회견

남아있다는것은 리명박수 없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남조선당국이 합심침몰과 관련한 자료들을 모두 공개하고 재확인하기 위한 증언을 내설것을 요구하였다.

신문은 이미 당국이 미국주관에게 400페이지 짜리 자료를 《유엔조사위원회》에 2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넘겨주었음뿐 아니라 이달말 《합동조사단》의 종합보고서가 완성되면 조사에 참가한 관련국들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독 자기 인민들에게만은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 《천안》 합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10페이지도 안되는 요약된 보고서

반통일역적은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

최근 현인택역도가 북남관계 관련 책임에서 벗어났다고 리명박이 발표한 껀변을 다 늘어놓고있다. 역도는 반공화국대결모략극단 합심침몰사건으로 북남관계가 풍지박산나고 그에 대한 각계의 항의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저들이 《원칙을 견지해왔다.》느니, 《북남관계가 정상적인 껀도를 찾아가고있다.》느니 하는 얼토당토않은 변명을 늘어놓았다.

며칠전에는 북남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보다 건전하고 정상적인 판계를 향해》간다느니, 《거친 물살을 헤쳐나가기 위한 증언을 내설것을 요구하였다.》

신문은 이미 당국이 미국주관에게 400페이지 짜리 자료를 《유엔조사위원회》에 25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넘겨주었음뿐 아니라 이달말 《합동조사단》의 종합보고서가 완성되면 조사에 참가한 관련국들에게도 제공하겠다고 밝히며 대해 언급하였다.

그러나 유독 자기 인민들에게만은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국회》 《천안》 합침몰사건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 10페이지도 안되는 요약된 보고서

역적이 그 무슨 《정상적인 껀도》니 뭐니 하며 저들의 반통일책동을 합리화하고 지어 철회하게도 우리에게 북남관계 관련 책임을 넘겨줘우려고 발표하는데 대해 인민들은 치솟는 격분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현인택역도는 그 어떤 슬책으로써도 6. 15통일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며 북남관계를 완전히 파탄시킨 용납 못할 반민족적악을 결코 가리울수 없다.

북남관계가 오늘처럼 회복의 여지조차 찾아볼수 없게 풍지박산나고 대결의 악순환을 거듭하고있는것은 전적으로 현인택역도를 비롯한 괴뢰보수세당의 반통일책동의 후파이다.

6. 15공동선언발표후 끊임없이 발전하던 북남관계는 보수세당이 집권하여 그 무슨 《비핵, 개방, 3 0 0》이라는 무어를 표명하였다. 실제로 회복의 기회를 찾았던 북남관계는 현인택의 《원칙고수》망동으로 다시금 악화의 수렁속에서 빠져나왔다.

지난해 8월 조선아시아태평양양평위원회와 남조선의 현대그룹사이에 중단된 금강산관광을 빠른 시일안에 재개할데 대한 공동보도문이 발표되고 우리의 투사주의방안단의 서울방문이 있었으며 휴전지 가측, 친척들의 상봉이 진행되는 등 북남관계에서는 모처럼 긍정적인 움직임이 나타났었다. 이것

은 6. 15 공동선언의 정진에 따라 북남관계의 정체를 하나 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현인택은 《원칙있는 남북관계》니,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이니 하고 고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직접적으로 서슴없이 제동을 걸었다. 지어 《근본적변화》 아닌 전술적변화》라는 망발로 회의를 응대하며는 우리에게 도발까지 걸었다.

결국 거역에게 희망을 주며 울트던 북남관계개선의 싹은 여지없이 지워졌다.

현인택역도는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룩된 북남관계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말살한 회화와 협력의 철저한 파괴자이다. 역도는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협력의 문턱을 넘을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북남사이에 진행되어오던 여러 갈래의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차단봉을 내리었으며 내놓에는 《6. 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마저 말아먹었다.

현인택은 우리의 진지한 협상 자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3대조건》문제를 집요하게 내밀며 금강산관광개개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개성공영지구문제로 합심침몰사건을 구실로 현인택패당의 이른바 《대북제재》소동은

은 6. 15 공동선언의 정진에 따라 북남관계의 정체를 하나 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현인택은 《원칙있는 남북관계》니,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이니 하고 고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직접적으로 서슴없이 제동을 걸었다. 지어 《근본적변화》 아닌 전술적변화》라는 망발로 회의를 응대하며는 우리에게 도발까지 걸었다.

결국 거역에게 희망을 주며 울트던 북남관계개선의 싹은 여지없이 지워졌다.

현인택역도는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룩된 북남관계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말살한 회화와 협력의 철저한 파괴자이다. 역도는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협력의 문턱을 넘을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북남사이에 진행되어오던 여러 갈래의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차단봉을 내리었으며 내놓에는 《6. 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마저 말아먹었다.

현인택은 우리의 진지한 협상 자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3대조건》문제를 집요하게 내밀며 금강산관광개개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개성공영지구문제로 합심침몰사건을 구실로 현인택패당의 이른바 《대북제재》소동은

은 6. 15 공동선언의 정진에 따라 북남관계의 정체를 하나 발전시켜나가는 우리의 주동적인 노력의 결과였다. 그런데 이제 현인택은 《원칙있는 남북관계》니,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의 추진》이니 하고 고사하면서 북남관계개선을 직접적으로 서슴없이 제동을 걸었다. 지어 《근본적변화》 아닌 전술적변화》라는 망발로 회의를 응대하며는 우리에게 도발까지 걸었다.

결국 거역에게 희망을 주며 울트던 북남관계개선의 싹은 여지없이 지워졌다.

현인택역도는 6. 15공동선언발표이후 이룩된 북남관계의 성과들을 체계적으로 말살한 회화와 협력의 철저한 파괴자이다. 역도는 핵문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협력의 문턱을 넘을수 없다.》고 떠벌이면서 북남사이에 진행되어오던 여러 갈래의 협력사업들을 모조리 차단봉을 내리었으며 내놓에는 《6. 15의 옥동자》로 불리우던 금강산관광마저 말아먹었다.

현인택은 우리의 진지한 협상 자세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무슨 《3대조건》문제를 집요하게 내밀며 금강산관광개개의 길을 완전히 가로막았다. 개성공영지구문제로 합심침몰사건을 구실로 현인택패당의 이른바 《대북제재》소동은

본사기자

조선반도에 하루빨리 평화보장체제가 수립되어야 한다

우리 공화국 외무성이 조선전쟁 발발 60년이 되는 올해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기 위한 회담을 조속히 시작할것을 정전협정 당사국들에 제의한 데로부터 적지 않은 시일이 흘렀다. 정전협정당사국들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 비핵화를 진심으로 바란다면 더 이상 자기의 이익부터 앞세우면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담하게 근원적인 문제에 손을 댈 용단을 내릴것을 호소하는 제안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민들의 지향과 념원, 시대적흐름을 반영한것이다.

만일 유관측들이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언의 취지를 출세 인식하고 그에 상응한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호응을 보였더라면 조선반도정세가 지금쯤 훨씬 완화되었을것이라는것은 의심할바 없다.

그러나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우리의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측할수 없는 엄청난 국면으로 치닫고있다.

적들이 조작한 반공화국모략은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미처남편은자들이 과연 누구인가를 명명백백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 수십년동안이나 남조선을 가로막고있던 그것을 거대한 핵무기로, 전초기지를 전변시켜놓은 미제가 정세 국난적인 상황에 몰고간것은 전쟁의 방법으로 전조절을 접어삼기고 이것을 아시아 침략을 위한 군사적발동으로 써먹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이 조선반도정세를 의도적으로 긴장시키면서 북남대결을 더욱 부추기고 조

미적대결을 최대로 악화시키는 길로 나아가고있는것은 그러한 기도로부터 출발한것이다.

공정한 세계여론이 조선반도정세가 2003년 미국의 이라크침략당시를 편승해 한다고 평하고있는것은 우연하지 않다.

현실적으로 조선반도에는 그 어떤 유발적인 사건에 의해서도 전면전쟁이 일어나 핵전쟁으로 번져갈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조선반도에서의 새 전쟁은 이라크전쟁과는 대비도 안되는 엄청난 파국과 재단을 몰아올수 있다.

현 사태는 조선반도의 긴박한 정세를 완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조선전쟁의 발발을 가져오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이것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때 대한 우리의 요구의 절박성과 정당성을 다시금 똑똑히 확증해 주고있다.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절실한 문제로 나서는것은 이 지역이 가장 침에한 힘의 대결장으로 되고있는것과 관련된다.

미국은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무력충격을 진행하면서도 조선반도를 포함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무력을 체계적으로 증강하면서 새로운 조선전쟁을 일으키려고 발방하고있다. 침략적인 대조선정책에 따라 남조선과 일본 등 조선반주변에 핵강공포함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미군기동타격무력이 집중 전개되고있다. 한편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미국주도하의 합동군사연습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있다. 미국이 본토와 일본의 미군기지들의 무력까지 동원하여 남조선에서 강행하고있는 전쟁연습들은 조선반도정세를 폭발적인 국면으로 몰아가고있다.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는것은 시대의 흐름으로 보아도 매우 긴급한 문제로 나서고 있다. 오늘 세계 여러 나라들이 분쟁과 대결국면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을 도모하며 발전을 다그쳐나가고 있다. 전쟁과 대결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 발전이 시대의 기본흐름으로 되고있다. 지난해 적대적경쟁을 가지고 대립관계에 있던 나라와 세력들사이에도 화해와 관계개선을 직업이 나타나고있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언은 조선반도에서 정전협정을 막고 긴장상태를 완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도로 된다.

조선반도와 같이 전쟁이 발발된지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불안정한 정전상태가 지속되고있는 지역은 세계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와 미국은 아직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다. 정전이 없없이 지속되고있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다시 울리지는 않는다는 담보없는 어디에도 없다. 정전상태에 있는 지역에서 군사적충동이 일어나는것은 예상사이다. 국제무대에서는 쌍방이 정전을 선포하고도 그것이 재발되는 사태가 한두번만 있지

않았다. 미국의 파괴행위로 하여 조선전쟁협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우리 공화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위협이 날로 강화되고있다. 정전은 말그대로 전쟁의 일시적인 중지이다.

이미 유명무실해진 정전협정은 미국이 조선반도에서 언제든지 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조건으로 되고 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것은 조미적대결을 해소하고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선적조건이다.

조선반도에서 전쟁방지와 평화보장은 낮은 정전협정을 새로운 평화협정으로 바꾸는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조선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씨가 터지는 경우 그것이 가져올 파국적후과는 지난해 제기 조선전쟁태와는 대비도 되지 않을것이다.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막기 위한 근본방안은 하루빨리 낮은 정전협정을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보장체제를 수립하는것이다.

우리의 평화협정체결제언은 조선반도비핵화와 모순되지 않을것을 더욱 추동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공화국정부의 성의있고 진지한 노력에 의하여 1990년대부터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위한 대화들이 진행되었다. 그 과정에 《조미비합의문》과 9.19 공동성명과 같은 중요한 쌍무적 및 다수적합의들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그 모든 합의들은 리해이 중도반단되

거나 통째로 뒤집혀지고말았다.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은 줄어든것이 아니라 더 증대되었으며 핵억제력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을 다시 제대로 올려세우기 위해서는 핵문제의 기본당사자들이 조미사이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선차적인 주목을 돌려야 하며 그러자면 조미적대결의 근원인 정전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협정부터 체결해야 한다.

평화협정체결은 어느 일방이 상대방에게 혜택을 베풀거나 대가를 치르는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조미쌍방을 포함한 유관국들과 국제사회에 다같이 리롭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기여하는 실용성있는 정치적문제이다.

핵문제해결의 절박성과 유관측들의 의향을 고려한 우리의 공명정대하고 융통성있는 평화협정체결제언은 조선반도비핵화과정에 평화보장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받아들일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 된다.

미국이 진실로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로 나온다면 평화협정체결은 문제로 되지 않으며 조선반도비핵화과정도 빠른 속도로 추진될것이다.

조선반도평화보장은 우리 민족의 지향으로 보아도 더는 지체할수 없는 절박한 문제이다.

올해가 조선전쟁발발 60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민족은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더욱 절절히 바라며 그 실현을 기대하고있다. 진정국면으로 치닫는 조선반도의

들은 우리 나라를 반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공공연히 췌치고있다. 그들은 핵무력에 의한 새로운 조선전쟁의 속진속격을 추구하고있다. 대국들의 리해관계가 착잡하게 얽혀있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임시로 주변나라들에 번져지고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확대되게 될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류는 참혹한 핵재난을 입을수 있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은 세계의 평화보장과 새 세기 나라와 민족들의 번영발전을 위해 나서는 역사적 과제이다.

조선반도의 평화보장문제가 해결되어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전쟁위협을 가지고 이곳이 전쟁위협이 없는 평화지대로 될수 있다. 또한 그렇게 되어야 동북아시아경제권을 안정시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 안전을 보장하는데 유리한 조건과 환경이 마련될수 있다.

조선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평화를 수호하면 세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한 확고한 담보물 마련하려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확고부동한 립장이요 의지이다.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미래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할것이다.

미국은 현실을 통하여 그 위악성과 허황성이 드러난 《전략적인내》정책을 고집하지 말고 우리의 공명정대한 평화협정체결제언에 하루빨리 성근하게 응해나오는것이 좋을것이다.

리 현 도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우리 나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계획을 폭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40여년전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영국신문 《가디언》 7일부는 전 미군사령관 닉슨의 손이 《핵담추》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하면

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얼마전에 공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1969년 《EC-121》대형간첩비행기 사건에 우리 나라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였으며 남조선주둔 미공군기지에서 핵무기를 적재

한 전투기들이 출격태세를 갖추었던 사실이 당시 미공군 전투기조종사에게 밝혀진대 대해 상세히 견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과 미국의 연방방송도 6일과 13일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단결 호소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12일 아프리카 나라들이 《초대국》들의 강행행위와 맞서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초대국》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 나라들에서의 민족적합합을

파괴하고 분열을 획책하고있다 고 규탄하였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러한 식민주의책동을 반대하여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수단정부는 앞으로 경제 및 무력분야에서 지역 나라들과의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사에국주의교양에 힘을 넣어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모스크바주의 벨로폴스크 구역에는 벨로르프대장병영영양박람회이다. 여기로는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박람판에는 조국전쟁시기 사진들과 문헌들 그리고 모스크바방위전투에서 파시스트 침략자들로부터 로획한 전리품들이 전시되어있다. 박람판에는 군사에국주의교양을 요구하고있다.

박람판을 돌아보면서 청소년들은 과소도이철란트침략군을 반대하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운 소련군장병들의 용감성, 애국주의정신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군사에국주의교양은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로씨야인민들의 노력을 추동하고있다.

중국에서 큰물피해방지 및 구제사업을 잘할데 대한 지시 하달

중국의 호급도주성과 은가 보국무원총리가 최근 장미철 큰물피해방지 및 구제사업을 잘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들은 지시에서 각 지역과 부문들에서 인민대중들에게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이 사업을 실속있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며 큰물

탄압 만행 비난

에집트의무장 아흐마드 아부 알 게이트가 14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구트스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살

립집들을 강제철거시킨것과 관련하여 그는 그것을 부당한것으로 략인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러한 처사는 팔레스타인과의 평화회담에 장애를 조성하며대 그 목적이 있다고 경고하였다.

부당한 결정 배격

위한 수단정부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으로 략인하였다.

수단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와 같은 처사를 물리치고 보타 큰 성과를 이룩하는데 로써 그에 대응해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로씨야국방상은 기동전략훈련 《워스도크-2010》은 매우 규모가 큰 훈련으로서 로씨야의 근대사에 있어본적이 없다고 말했다.

오늘은 조로공동선언발표 10돐이 되는 날이다.



살림집 가격, 물가 인상

— 12일 일본중앙은행은 올해 6월에 전국적으로 도매물가 인상이 또 일어났다고 밝혔다. 그중 휘발유와 석탄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2.8%, 유석 가격 가격은 1.4%나 뛰어올랐다 한다.

【조선중앙통신】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결정 배격

수단정부 대변인이 12일 성명을 발표하여 국제형사재판소의 부당한 결정을 배격하였다.

최근 국제형사재판소가 수단대통령에 대한 두번째 체포명장을 발급하기로 결정된것과 관련하여 성명을 그것을 다르푸르문제를 해결하기

정국 혼란을 예고한 《불균형국회》

지난 11일 일본에서는 제 22차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엔 민주당을 비롯한 일본의 각 당들은 참의원선거수 242개중 121개의 의석을 놓고 선거를 치렀다.

일본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번씩 참의원의원의 절반을 다시 선기한다. 이번 참의원선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 전국구모에서 처음으로 치행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하였다. 여론들은 이번 선거를 일명 민주당이 집권한 후 국민들로부터 처음 받은 《학기말시험》이나 같다고 평하였다.

이 《시험》결과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적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의석확보를 위한 소비세증가를 반대한다면 민주당이 더 불안정해질것은 변하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서 이루어진 양원제국회를 가지고있다.

현재 중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있으므로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총리직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통과되어야 발효되기에 참의원에서의 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민주당의 주요정책이 표류할수 있다는것이 선거전 내외여론의 공통된 견해였다.

지난 시기 자민당정권말기에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로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총대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론들은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지난해 정



보도된바와 같이 지난 5월말 이스라엘군이 6척으로 구성된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을 공격하였다. 이 원조선단은 인도주의원조물자를 싣고 가자지대를 향해 항행하고있었다.

이스라엘군은 공해상에서 항행하는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을 불의에 기습공격하여 무적항상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살상하는 만행을 감행하였다. 배에 탔던 튀르키예인기자의 증언에 의하면 이스라엘군 병사들은 당시 상황을 촬영하고있던 튀르키예인인간단체성원의 머리에 대고 총을 쏘았다고 한다. 선장이 이스라엘병사들에게 《여기는 공해상이다. 강행할것을 원하지 않다.》고 하면 특히 주목되는것은 이번 이라크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 공격에 대한 공격적이며 평화적인 선단에 대한 군사적행동으로서 그 무엇보다도 정당화될수 없었다. 유수한 정보에 의하면 이번 사건이 국제수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군의 기습공격을 《잔인무도한 행위》로 규탄하면서 독자적인 진상조사단을 파견할것을 결정하였다.

아르헨티나정부는 국제수역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사건을 단죄하면서 그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주장하였다.

철퇴의무성은 성명을 발표하여 《철해는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을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레오칼동맹에 관여》하고있다 고 억지주장을 하였다.

이스라엘이 지명한 사람들을 중 한 사람인 연례 오키즈를 자기를 《하마스특공대를 훈련》시키기 위해 가자지대로 들어가는 《금전적 반이스라엘활동가》로 묘사한 이스라엘의 주장을 배격하면서 자기는 그 무슨 소위배를 위해 무기를 소지한적이 없다고 반박하여 튀르키예에 온 후 그는 《그들이 나를 《레오칼의자》로 보았지만 왜 보았는지 알고는 가?》고 반문하였다.

최근 튀르키예는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행위에 항의하여 이스라엘 주재 자국대사를 소환하였다. 튀르키예는 이스라엘이 이번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하며 국제수역에 동의할것을 요구해나가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면서 저들의 죄과에 대해 인정, 사과하기는커녕 국제적조사를 거부해나가고있다.

이스라엘 수상 네타냐후는 가자지대로 향하던 국제인도주의원조선단에 대한 이스라엘 특공대의 기습은 《정당》하며 이에 대한 비난은 《위선》이라고 떠벌이었다. 그는 원조선단의 선박 6척중 마지막선박에 대한 레오칼동맹을 지지하는 《극단주의자》들이 승선해있었다고 나발을 불어댔다.

이스라엘은 사건발생후 성명을 발표하여 5명의 승객의 이름을 지명하면서 그들이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공격계획을 폭로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40여년전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영국신문 《가디언》 7일부는 전 미군사령관 닉슨의 손이 《핵담추》에 가담하였다고 생각하면 소름끼치는 일이라고 하면

서 미국이 조선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한 사실이 얼마전에 공개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신문은 미국이 1969년 《EC-121》대형간첩비행기 사건에 우리 나라에 대한 핵공격을 계획하였으며 남조선주둔 미공군기지에서 핵무기를 적재

한 전투기들이 출격태세를 갖추었던 사실이 당시 미공군 전투기조종사에게 밝혀진대 대해 상세히 견하였다.

로씨야의 이따르-따스통신과 미국의 연방방송도 6일과 13일에 같은 내용을 보도하였다.

아프리카 나라들의 단결 호소

수단대통령 오마르 하산 아흐마드 알 바쉬르가 12일 아프리카 나라들이 《초대국》들의 강행행위와 맞서 단결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초대국》들이 아프리카 나라들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 나라들에서의 민족적합합을

파괴하고 분열을 획책하고있다 고 규탄하였다.

아프리카 나라들은 이러한 식민주의책동을 반대하여 단결과 협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는 수단정부는 앞으로 경제 및 무력분야에서 지역 나라들과의 협조를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군사에국주의교양에 힘을 넣어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다.

모스크바주의 벨로폴스크 구역에는 벨로르프대장병영영양박람회이다. 여기로는 청소년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다. 박람판에는 조국전쟁시기 사진들과 문헌들 그리고 모스크바방위전투에서 파시스트 침략자들로부터 로획한 전리품들이 전시되어있다. 박람판에는 군사에국주의교양을 요구하고있다.

박람판을 돌아보면서 청소년들은 과소도이철란트침략군을 반대하며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결사적으로 싸운 소련군장병들의 용감성, 애국주의정신에 감동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군사에국주의교양은 나라의 안전과 발전을 위한 로씨야인민들의 노력을 추동하고있다.

중국에서 큰물피해방지 및 구제사업을 잘할데 대한 지시 하달

중국의 호급도주성과 은가 보국무원총리가 최근 장미철 큰물피해방지 및 구제사업을 잘할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

그들은 지시에서 각 지역과 부문들에서 인민대중들에게 책임진다는 정신으로 이 사업을 실속있게 틀어쥐고 인민대중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며 큰물

탄압 만행 비난

에집트의무장 아흐마드 아부 알 게이트가 14일 기자회견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탄압만행을 신랄히 비난하였다.

최근 이스라엘당국이 동부구트스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의 살

부당한 결정 배격

위한 수단정부의 앞길을 가로막기 위한 책동으로 략인하였다.

수단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이와 같은 처사를 물리치고 보타 큰 성과를 이룩하는데 로써 그에 대응해나갈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하였다.

정국 혼란을 예고한 《불균형국회》

지난 11일 일본에서는 제 22차 국회의원선거가 진행되었다. 이번엔 민주당을 비롯한 일본의 각 당들은 참의원선거수 242개중 121개의 의석을 놓고 선거를 치렀다.

일본에서 참의원의원의 임기는 6년이며 3년에 한번씩 참의원의원의 절반을 다시 선기한다. 이번 참의원선거는 민주당이 정권을 장악한 후 전국구모에서 처음으로 치행되는것으로 하여 사회의 커다란 관심을 하였다. 여론들은 이번 선거를 일명 민주당이 집권한 후 국민들로부터 처음 받은 《학기말시험》이나 같다고 평하였다.

이 《시험》결과에 따라 앞으로 민주당의 정치적운명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약 여당인 민주당이 참의원선거에서 과반수의석확보를 위한 소비세증가를 반대한다면 민주당이 더 불안정해질것은 변하다. 일본은 중의원과 참의원으로서 이루어진 양원제국회를 가지고있다.

현재 중의원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고있으므로 참의원선거에서 민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총리직을 내놓아야 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모든 법안이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통과되어야 발효되기에 참의원에서의 야당이 과반수의석을 차지하는 경우 민주당의 주요정책이 표류할수 있다는것이 선거전 내외여론의 공통된 견해였다.

지난 시기 자민당정권말기에 참의원에서의 여소야대로 정국이 불안정해지자 총대에 정권이 교체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론들은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지난해 정

여론들은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지난해 정

이것이 참의원선거를 앞두고 이것을 지난해 정